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 ▶▶ [이달의 인물] 2020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 ▶▶ [청소년뉴스] 경기 화성시, 11월부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제공
복지부 금연광고 논란
생리빈곤의 종결 스코틀랜드, 생리대 무상보급
- ▶▶ [학교소식] 경상사대부고 학생들, 티끌모아 태쌀 기부
진주기공, 경남기능경기대회 금3, 은2, 동2 수상
경진고 경남기능경기대회 미용부문 석권
진주외고 윤이나, 골프 아마추어 1위
진명여중 도서실 온라인 행사 슬기로운 독서생활
- ▶▶ [특별인터뷰] 2020 허인수 진주교육장님을 만나다
- ▶▶ [특집]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 ▶▶ [맷캉년맷반] 2019 진주여고 1학년 9반편
- ▶▶ [맷캉년맷반-신청] 선명여고 3학년 5반편
- ▶▶ [19금 톡톡] 동물의 신비한 생식기 이야기
- ▶▶ [리얼거리미터] 청소년의 성(性)을 묻다
- ▶▶ [알라뷰봉사] 나의 봉사활동 보고서 '아름다운 가게'
- ▶▶ [뭐하고 놀아?] 취향대로 즐기는 #홈카페 놀이



- ▶▶ [필통 뮤직차트] 와우~이름이 뭐예요 하면 떠오르는 노래
- ▶▶ [필통실험실] 코로나19가 만든 달고나 커피 만들기
- ▶▶ [진주 맛집 맞지] 맛과 행복을 만든다는 망치공장
- ▶▶ [JOB을 잡아라] 진주경찰서 박OO 형사를 만나다
- ▶▶ [씨네통통] 코로나19 이후 첫 영화, 침입자
- ▶▶ [대학in 진주] 진주보건대학교를 찾아서
- ▶▶ [SOS 닥터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스트레칭
- ▶▶ [진주청험 이야기] 진짜 진주 청소년을 위한 일을 고민할 것
- ▶▶ [취재수첩] 봉사활동 No-Show? 이건 아니잖아
꼭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씹씹~ 사고위험 고고씹!
창의적 체험 활동, 자발적 자습시간인가?
지금 청소년은 FLEX에 빠져 있다
- ▶▶ [필통우체통] 독자글 모음
- ▶▶ [필통네모로직] 6월호 문제
- ▶▶ [광고] 필통 2학기 학생기자단 추가 모집

진주 하얀메디컬

아플때나 건강할때 늘 곁마운 친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 하얀피부과
- 하얀성형외과
- 하얀소아청소년과
-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20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학생기자단 2학기 추가 모집

- *모집기간 : 2020년 7월 26일(일)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 *모집인원 : 10명내외
- *모집대상 : 진주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도 지원 가능함)
- *문의 : 전화 070-8628-1318 /
카카오톡 아이디 feltong1318
- *응시방법 : 필통 홈페이지에 있는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로 보내주세요!
(feltong1318@hanmail.net)



[이달의 인물] 2020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2020 필통기자단을 이끄는 허윤지, 박서진 기자

대한민국 유일의 청소년 신문인 필통! 그곳의 중심엔 항상 필통학생기자단이 있습니다. 필통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얼굴 필통 기자단 허윤지 대표와 박서진 부대표를 만나 봅니다.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허윤지) 안녕하세요! 저는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26번! 필통대표 허윤지입니다.

A. 박서진) 안녕하세요! 저는 진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필통부대표 박서진입니다.

Q. 필통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A. 박서진) 저는 중3 학기 말에 필통을 지원했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필통 신문이 배부가 되지 않았는데 언니가 신문을 받을 때마다 집에 들고 왔어요. 같이 보다가 '아 나 도 기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Q. 필통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A. 허윤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실렸던 것 같아요. 또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처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땐 온통 낯선 사람들뿐이라 어색했는데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Q. 필통 활동의 장점 또는 매력을 소개해주세요.

A. 허윤지) 생활하다보면 저희 대표님처럼 '멘토'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친구들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고요.

A. 박서진) 물론 기사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이 값진 시간을 만들어 줘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얻습니다.

Q.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허윤지) 당연히 엠티죠! 엠티는 빠질 수 없어요. 또 저희 조가 1등을 두 번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 박서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돌아오는 길에는 다 위아더 월드가 되더라고요.(웃음) 필통 엠티는 최고랍니다. 리더쉽부터 팀워크까지 싹 다~

Q. 그렇다면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A. 박서진) 시험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시험기간에 학원이나 다른 행사와 필통이 겹치면 시간관리가 약간 힘들어지죠. 근

데 이것도 능력이겠지요? 성적도 좋고 필통활동도 열심히 잘하는 기자들도 많아요.(웃음)

Q. 필통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있나요?

A. 허윤지) 저를 조금 더 밝게!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지금은 저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저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A. 박서진) 더 이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웬만해서는 할까 말까 고민하던 것들은 거의 다 도전해 봤던 것 같아요. 조금 뻘뻘하기로 유명한 필통 면접을 보고난 뒤로 자신감이 생겼듯 이 도전을 망설이지 않게 된 것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Q. 필통기자단 대표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허윤지) 일단 제가 작년에 대표, 부대표를 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받아야겠다' 이런 거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애정이 있는 만큼 더 멋진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Q. 자신이 생각하는 필통기자의 조건이 있나요?

A. 허윤지)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필통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거니까요.

A. 박서진) 책임감입니다. 정말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책임감만 있으면 돼요. '이건 나만의 과제다' 라고 생각하고 기사든 창작물이든 맡게 된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 해내는 것이 기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Q.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각오가 있다면?

A. 허윤지)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할 거구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대표, 좋은 사람, 허윤지는 허윤지다.' 라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A. 박서진) 선배들이 졸업하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 저런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왼쪽이 허윤지대표, 오른쪽이 박서진 부대표〉

후회 없게 웃으면서 졸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Q. 활동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인가요?

박서진)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칭찬 받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필통은 꾸준히 뭔가가 하면 보상이 따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칭찬을 받으면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고 희열 같은 걸 느끼고 정말 즐거워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허윤지) 필통기자들은 알겠지만 필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특히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필통기자에 지원해 제가 느꼈던 모든 것을 전달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서진) 앞으로도 필통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필통을 재밌게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기에 필통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아마 이번 달에 신입기자 모집홍보가 나갈 텐데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해도 되는 거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해요!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학생기자단은 (사)청소년 문화공동체 필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소년들의 매체라 할 수 있는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자활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인 '필통 팟캐스트, 유튜브'도 직접 제작 방송하며 교육청등과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 멘토스쿨'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관련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필통기자는 진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다. 향후 중학생기자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방학때면 공식적인 학생기자모집을 진행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을 거쳐 10~12명 정도의 신입기자를 선발한다. 신입기자들과 활동중인 기자들은 '기자학교' '기자단 수련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매년 25~30명의 학생기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물론 자퇴등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필통기자단의 문은 열려 있다.

필통학생기자단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겨울방학때면 '기자단 수련회'에서 학생기자단을 이끌어 갈 기자대표와 부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는 신입기자, 현역기자뿐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한 필통 출신의 선배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고 후보들의 각오와 다짐을 듣고 한 해 필통을 이끌어 갈 자신들의 리더를 뽑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은 매년 겨울 방학때 기자단 정규모집을, 여름방학때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윤지, 박서진 기자의 개별 면접 당시 모습〉



〈필통기자가 되면 필통의 전용 기자수첩을 지급 받습니다〉



〈2020년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 선거 당시 허윤지기자〉



〈필통 유튜브방송, 직접 스토리보드 만들고 녹음합니다〉



〈필통기자단은 우리사회의 청소년관련 이슈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을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겨울과 여름방학이던 필통기자단은 1박2일 기자단 수련회를 떠납니다〉



〈매년 한해를 정리하는 필통기자단 시상식&송년회가 열립니다〉



〈필통기자단은 진주청소년을 대표해 지역의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출연합니다〉



〈기자들은 매주 편집회의, 스크랩 발표, 3분스피치, 25분 강의, 토론, 기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매년 겨울방학 MT때면 필통졸업식이 열립니다. 늘 울음바다가 되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졸업식입니다〉

[취재/ 진서영(삼현여고2)기자]

경기 화성시 11월부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제공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관내 18살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3살과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3일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청소년 시내버스 공짜"...무상교통 확대

화성시는 관내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모두 14만여명이며 이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12~15%인 1만7천명~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청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 신안군은 2007년부터 65살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 초·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또 충북 영동군도 70살 이상 노인 1만여명에게 2015년 9월부터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충청남도과 강원도 정선군도 65~75살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을 추진 중이다.

"생리빈곤의 종결" 스코틀랜드 생리대 무상보급

스코틀랜드에서 전국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생리 용품을 제공하는 법안이 사회적 갈등 없이 발효될 전망이다. 생리용품을 살 수 없는 여성들로 인한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을 마련한 스코틀랜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 생리 용품을 무료 공급하는 국가로 기록될 예정이다.



하는 비용은 연간 3,100만달러(약 3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생리대가 보편적 복지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지급은 확대되는 추세다. 영국은 지난해 하반기 학생들을 위한 보편지급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2016년 공립학교, 노숙자 쉼터,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 무료 비치물 시작했다.

여성 귀가 돕는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고 6월23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스마트폰 앱으로,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 서비스다. 위급상황이 발생 시 휴대전화를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 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되고, 실시간 CCTV 영상이 112상황실에 전달돼 경찰이 초기 골든타임에 강력 대처할 수 있다.



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서울시의 안심이 관제 기능을 넣어 각 지자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안심 앱을 다운 받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앱을 사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10명 중 한명 "신체 영상촬영 요구당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체 사진을 찍는 영상을 요구 받는 등 성적인 유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15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전국 중고생 64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11.1%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가 요구받은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성에 관한 대화'가 9.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성적인 정보에 관한 대화'(3.3%), '나체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2.4%), '화상채팅을 하며 성적 행위'(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의 2.7%는 만남을 제안받거나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경로로 청소년들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같은 인스턴트 메신저(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후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27.8%)와 인터넷 게임(14.3%), 랜덤채팅(13.7%)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은 가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76.9%가 '인터넷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피해를 본 후 청소년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54%)이 누군가에게 말했다(46%)는 응답보다 많았다.

남학생은 토론왕, 여학생은 뷰튜버 복지부 금연광고 논란

'고등학교 2학년 정○○, 뉴스도 많이 보고 토론도 잘 합니다(남학생)'.

'18살 장○○ 화장하는 걸 좋아해요(여학생)'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청소년 금연 광고를 두고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잘못된 광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8일 '담배는 노답(No 답), 나는 노답(No담배)' 광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개된 포스터에서 남학생들은 '얼리어답터' '토론을 잘한다'와 같은 소개를, 여학생에게는 '화장을 좋아한다' '우리아빠는 딸바보' 같은 설명을 붙였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남학생은 토론왕이라는 콘셉트로 등장한다.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도 자주 보고 토론도 잘 한다"고 소개한다. 반면 여고생은 "선생님은 아무 것도 안 해도 예쁘다고 하시지만 저는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해요"라며 등장한다.

이 같은 광고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여학생은 한쪽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학생은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존 성관념을 고착화한다는 내용이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여학생은 화장하고 아빠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그리는 명백한 여성혐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화장하는 것과 금연이 무슨 상관이나' '담배는 노답이라는 보건복지부 광고가 더 노답'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같은 광고 예산으로 약 2억원을 편성했다. 영상은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지상파,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방송되고 포스터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에 붙는다.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법무부가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기 위 민법에 담겨있는 '징계권'을 삭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6월10일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대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학교급식에 '채식 선택권' 도입된다

서울 학교들의 급식에 채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채식 선택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 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을 6월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생태전환교육이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건강문제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 급식은 육식 위주라 불평등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채식 선택권' 도입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급식 중 채식할 권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채식 급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학교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영양교사 등 급식 전문가 중심의 연구단을 구성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 채식 급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채식 급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를 선정해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초·중·고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상사대부고 학생들이 티끌모아 태쌀 기부 활동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생회와 봉사 동아리(MIG)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티끌 모아 태쌀'이라는 기부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8일(목)부터 6월 24일(수)까지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업 및 학교 급식이 연기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을 돕자는 취지로 진행하였다. 학교 급식이 연기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3~4월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받는 '농산물 꾸러미' 구성 물품 중 오래 보관이 가능한 쌀을 교내 학생들에게 기부를 받자는 봉사동아리(MIG) 부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학생회와 봉사 동아리가 5월 11일부터 수차례 화상 회의를 열고 행사계획을 확정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약 120Kg의 쌀을 모았고 이를 6월 25일(목)에 진주시 가호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기부활동의 기획과 논의 및 진행 과정은 화상 통화앱과 각 학급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준비하였고, 쌀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기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생겨 좋았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으며, 봉사동아리(M.I.G.) 최연성 부장(3학년)은 "기부 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 기쁘고, 학생회와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나눔과 협업의 정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기공, 경남기능경기대회 금3, 은2, 동2 수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2020년도 경남기능경기대회가 창원과 진주를 중심으로 지난 6월8일부터 15일까지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경남 지역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개발과 기능수준 향상 정도를 겨루는 이 대회에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는 4개 직종에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우수 2개를 수상해 세부 경남 거점특성화고등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 기능경기대회 꽃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필요한 메카트로닉스 직종(금), 프로토타입모델링 직종(금, 은, 동, 우수), 미장 직종(금, 은, 동, 우수)에서 수상했다.

1962년 설립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는 '민고 일하는 민주 생활인'을 교훈으로 삼아,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기술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실현하고 있다. 이번 대회 입상선수는 메달 수여와 함께 소정의 상금을 받았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동메달 이상 입상선수는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남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진주외고 윤이나, 골프 아마추어 1위

지난 6월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컨트리클럽(파72/ 6,373야드)에서 열린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경기에서 진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윤이나(17)선수가 아마추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윤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프로와 아마 통합 26위를 기록했다. 이날 45위로 부진했던 세계랭킹 1위 고진영 선수보다 높은 순위다. 지난해와 올해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기량을 인정받은 윤 선수는 2020년 진주외고로 진학해 본격적인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쌓을 준비를 시작했다. 아마추어 부문에



서는 뛰어난 실력을 앞세워 성인무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진고 경남기능경기대회 미용부문 석권

진주 경진고등학교가 경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2020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뷰티과,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6월17일 밝혔다. 경진고는 지난 8~12일 동안 개최된 대회에서 헤어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 은메달, 피부미용 부문에서 은메달을 수상했고,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까지 석권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6명은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을 취득하게 되고 전라북도에



서 실시하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진명여중 도서실 온라인 행사 슬기로운 독서생활



진명여자중학교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슬기로운 독서생활 온라인 행사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으로는 책표지 그림 공모전, 집콕 가족사진 공모전, 마음을 두드리는 글귀, 내 마음속의 인증샷으로 작품을 그려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모바일로 진행하였으며, 선착순과 우수 작품에 한해 6월 12일, 50명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독서행사는 기존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눈높이와 흥미를 맞춰 만족도가 높았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대적 상황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며 도서관 행사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즐기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주제일중 염기식 교사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

진주제일중학교는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둔 염기식 교사가 제자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염 교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제자들을 위해 2017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장학금은 7명의 학생들에 전달됐다.

경남과학고 졸업생 2020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 왼쪽부터 손택일, 최민후, 백관우 학생.

경남과학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대통령 과학 장학생에 졸업생 3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6월3일 밝혔다. 대통령 과학 장학금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 장학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에 선정된 학생은 손택일(2020년 조기졸업·포항공대), 최민후

(2020년 조기졸업·카이스트), 백관우(2020년 졸업·서울대학교) 등 3명이다.

대통령 과학 장학생 최종대상자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수학·과학 학업성적 및 과학활동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경남과학고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7명이 선발돼 전국 과학고 중 가장 많은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진주여중, 미래 교육위한 새 공간 구축 개소식

진주여자중학교가 2020학년도 진주행복교육지구 학교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층과 4층의 학교공간을 개선했다. 이 공간에는 학교 교육 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자치회실'과 학생들의 휴식과 놀이를 위한 '목련cafe'가 마련됐다. 5월24일 개소식을 열었다.

경상대부설중학교 '솔빛380' 독서프로젝트 운영

경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는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솔빛380'이라는 독서프로젝트를 학교 특색교육활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6월1일 밝혔다. '솔빛380'은 3년간 매일 아침 사제동행 독서시간을 통해 80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독서활동을 통해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독서라는 인생습관을 기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년 수준에 맞춘 책 4권과 독서기록장, 꾸러미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된 개인별 독서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고입 봉사활동 기준 '50→40시간' 변경

경남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20학년도에 한해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2021학년도 고입의 봉사활동 반영시수를 축소한다. 경남교육청은 6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로 시행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에 한해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준시수를 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기준 내 봉사활동 반영 시수를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1~2학년 동안 기준시수(40시간)만큼 봉사활동을 다 채운 학생은 3학년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고입의 봉사활동점수에 만점(15점)을 받을 수 있다.

진주여중, 릴레이 연주와 함께 한 첫 등교

진주여자중학교는 지난 5월27일 첫 등교 중앙현관에서 릴레이 음악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발열 체크를 받고 학급으로 가는 통로를 지나면서 바이올린, 비올라, 플루트, 클라리넷 연주를 감상했다. 이날 음악동아리 소속 8명의 학생들은 독주와 중주 여섯 곡을 연주했다.

음악과 공정순 교사는 "올해 부임해 아이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용기를 내 음악동아리를 결성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과 교감의 폭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별인터뷰] 2020 허인수 진주교육장님을 만나다!

"학교는 학습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곳, 기술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온라인 개학이 있었고 5월말이 되어서야 등교를 할 수 있었다. 필통은 한참 늦었지만 진주교육지원청을 찾아가 교육장님을 만나 보았다. 3월 취임을 하셨지만 이제야 필통 독자를 만나게 됐다. 농담도 던지시고 잘 웃으셔서 편안한 분위기의 인터뷰였다.

Q. 교육장으로 오시기 전 어떤 일을 하셨는지?

A. 저는 28년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 전문가입니다. 일선 학교 교장도 하고 교육감님 비서실장이란 직책도 맡았었습니다. 이제 제 고향인 진주로 오게 되었는데 교육현장과 우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학교의 일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동의합니다. 어제 고3들이 등교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대적으로 얼굴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힘들고 걱정이 많을 거예요. 고3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이후 학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밀집된 채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어려움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수업도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식사시간에 대화 금지, 적정 거리 유지와 같은 것들은 정말 익숙하지 않고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난감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방역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와 질서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 거리와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더 나은 방법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장하면 그냥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 밖에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A.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하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교육청의 정확한 명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분야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청이고 그것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교육장이죠. 교육청에 오면 1층엔 교육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학생

안전과, 교육지원과 등이 있죠, 1층은 학교를 어디에 지을까? 학생을 어디로 보낼까 등 하드웨어적 고민을 하고 2층은 학사운영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안전 인권문제까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어요. 진주의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민하고 지원해 줍니다.

Q.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잖아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스케줄도 아니니까요.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단순히 버스비의 문제가 아니죠. 교육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면 기본적인 국민들의 의식주, 의료, 교육은 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누구나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교통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비용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빨리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겠죠.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해 보겠습니다.



Q. 이번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투표권,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18세, 17세, 16세까지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선거권 연령은 더 낮아지는게 맞고 학생들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준비들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14살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뭐가 옳고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일상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문화가 사회 참여와 정치를 멀리 있게 만들지 않

습니다. 그것 역시 교육의 일부입니다.

Q. 현재 등교가 격주제로 운영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봤잖아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증상임에도 검사를 받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격주제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의 교육방법을 써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매우 힘듭니다. 국가적 재난상황

것 아닌가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육장끼리 모여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화되어선 곤란합니다. 소외되거나 기회가 박탈되는 학생이 없도록 여러 정책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진주 청소년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국가적 재난상황이잖아요.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힘든 게 당연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두 고통을 나누어야..."

이잖아요.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힘든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고통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학생들이 공부와 수학적능력보다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A.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당국에서는 체험학습 항목에 가정학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교 자체가 부모님이나 학생 스스로 불안함이 있다면 등교 거부를 해도 가정학습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출석이 인정 됩니다.

Q. 우리나라 사교육이 문제라는 얘길 늘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측면에서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A. 앞으로의 세상은 학벌이나 지식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시키는 곳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역량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이고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교육장으로서도 멈춰있지 않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필통기자들이 진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실을 찾았다. 허인수 진주교육장님 인터뷰 때문이다. 올해 부임하셨다. 코로나19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여서인지 긴장된 1 학기를 보내고 있으시다.



필통이 다시 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단 대표, 부대표가 인터뷰를 준비했다. 늦었지만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많은 학생이 밀집된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 교육장님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듯 하다.

인터뷰 내내 환한 웃음을 보이신 교육장님은 진주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신 토박이셨다. 기사시험과 교사시험이 같은 날 있어 선택했던 길이 교직이었고 품은 뜻을 펼쳐다보니 이런 저런 곡절을 겪어 3월부

터 진주교육청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신다.

학교현장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 하시며 스스로 멈춰 있지 않을 것이라 힘주어 말하신다. 학교는 학습하는 곳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곳이라고, 기술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하시는 모습에서 열정이 엿보였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조바심 내지말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며 스스로의 소신을 털어 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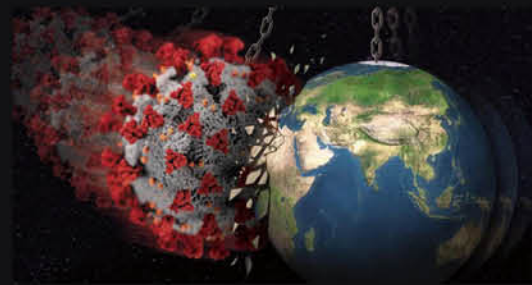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손수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 교육장실에 피자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필통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같이 웃으신다. 사실 오래전부터 필통을 아껴주셨고 챙겨주신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모두가 힘겨운 코로나의 시간,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도 선생님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필통'도 진주 청소년들을 위해 즐겁게 활동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도 하셨다.

[특집]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①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뉜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블랙스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블랙스완이 지나간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 석 달이 지났다. 모든 이가 세상은 이제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질 것이라 말하며 상상이상 세상의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상 10가지

1. 드라이브 스루 증가

비대면 거래인 드라이브 스루(Drive-Thru)가 증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드라이브 스루 영역이 더욱 증가해서 기존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커피, 지자체 농산물 판매 등 만 진행했었지만 많은 편리함이 입증되면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 극복 이후 외식업을 넘어 다른 유통 영역에서까지 드라이브 스루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유통업체 뿐 아니라 전통시장, 수산시장 등도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이다.

2. 기존 교육업계 패러다임 변화

원격수업의 보편화로 에듀 테크(Edu-tech)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 관련 사업이 발전한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온라인 강의나 재택학습으로 급선회하면서 앞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많다.

3. 재택근무 활성화

재택근무 활성화는 감염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며 업무형태를 바꾸게 될 것이다.

4. 생필품 배달 증가

앞으로는 가족의 생필품을 사기위해 직접 마트에 가기 보다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같은 비대면 소비로 인한 배달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5. 언택트 문화 확산

대면, 대화를 통한 방식보다는 문자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은 더 늘어날 것이고 가족과 갖는 시간이 증가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교류하는 대인 관계에서 가족 중심의 축소 지향적 관계로 변할 것이다. 외식 또한 비대면 심리가 있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앱 주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6. 바이오 산업 성장

바이오산업은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이후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7. 한국의 위상 상승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의료진들의 뛰어난 진단키트도 먼저 개발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였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 등은 한국 따라하기 붐을 일으키며 한국 브랜드를 세계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8. IT 기술산업의 발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모바일 IT 기술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하도록 돕는 등, IT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면서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가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는 첨단 IT 기술이 세계경제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이다.

9. 종교단체의 재정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종교계는 오프라인 예배와 미사를 중단하면서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신자들의 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 시설 유지를 위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

10. 친환경 소형차 선호

코로나 이후 감염 위험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피하면서 소형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져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소형차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이다.

다시 고개 드는 코로나19 꼭 숙지해야 할 예방 수칙



주춤 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이 느슨해진 결과입니다. 특히 돌아오는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및 토착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개인·가족·사회의 건강을 위해 예방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종식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Q.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보통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열·인후통·기침 등의 증상을 잘 보입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나 객혈·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되고 구역,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감기, 독감, 코로나19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 감기는 주로 상기도 감염 증상을 보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콧물이나 두통, 인후통, 그리고 몸살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고 대부분 일주일이면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독감은 상기도 및 하기도 감염증상을 모두 보입니다. 아울러 고열과 심한 근육통, 두통,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보통 일주일 이상 지속합니다. 겨울 같은 독감 유행시기에는 독감 검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평균 5~7일 정도인데, 14일까지도 보고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보통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심한 인후통이나 고열, 호흡곤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잠복기 전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잠복기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서 증식하는 시기

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양, 증식 속도, 면역력에 따라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관찰하면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는 기온의 영향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활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한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따뜻한 날씨만으로 바이러스가 증식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겨울철 대유행이나 토착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폐쇄된 곳을 피하고, 생활방역 대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누구인가요.

고위험군에는 고령자, 당뇨병, 신부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임산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속합니다. 특히 흡연자도 중증 발생 위험률이 14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Q. 올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나요.

겨울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폐쇄된 곳에서 밀접한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집단생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2차 대유행이 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Q. 가장 주목할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나요.

우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관절염·말라리아 약으로 쓰였던 약물,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들의 임상효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가 일부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연구 결과와 근거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1~2년 내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Q. 코로나19 전염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활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한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따뜻한 날씨만으로 바이러스가 증식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겨울철 대유행이나 토착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폐쇄된 곳을 피하고, 생활방역 대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은 무엇인가요.

우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간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손 세정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실내에 여럿이 모일 경우 가끔씩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하지 말고, 사람간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침이 나면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집]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②

특별한 등교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못하니 세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이름밖에 몰랐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다. 또 예전의 학교생활과는 얼마나 다를지도 너무 궁금했다. 일상이었던 등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되어 있었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학교로 향했다.

교문에서부터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침마다 악수를 건네며 우리를 맞이해 주시던 교감선생님은 멀찍이 서서 인사를 하셨고, 다른 선생님은 손소독제를 일일이 나눠 주셨다. 1층 현관의 모습도 달랐다.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현관은 막혔고 열을 체크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지나야만 교실로 들어 갈 수 있었다.

교실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험대형으로 정렬된 책상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실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하게 했다. 수업시간 선생님과 학생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이 진행됐다. 더워지는 날씨에 이게 계속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같다. 선생님은 우리보다 수십 배는 고통

스러운 일이다. 금금했던 점심시간이 됐다. 급식소 입장을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열매기, 1.5M 줄 서기, 30초 이상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바르기였다. 급식소에 입장하니 또 다른 낯선 풍경이 보였다.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식사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급식소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당연히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 불편했다.

이렇게 2학년이 되고 한 참이나 늦게 등교를 하고 있다. 등교가 불안, 불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 않았다. 마스크는 몇 달 동안 익숙해져 한 몸처럼 느껴지고 집에만 있다가 선생님, 친구들도 만나며 일상을 찾아가니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역에 엄청나게 신경 쓰고 철저히 준비된 것을 보니 놀라웠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한동안 힘들고 고통이 지속되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주고2 김현도기자]

걱정이었지만

늦게라도 등교를 하게 되어 다행이다. 고3은 매일 학교를 가지만 여전하고 고1과 고2는 나눠서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학을 앞 두고 새 학기에 새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등교를 했어도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마스크를 낀 채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생활하는 일상이 어색하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친구들을 만나서 좋다. 각 교실마다 "거리를 늘리고 마음을 가까이 하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 처음 이 글귀를 보았을 때 순간 마음이 뭉클했다. 날마다 여러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교도 특별하지만 학교에서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드디어

5월 22일 처음 학교에 갔다. 새학기의 설렘은 다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더 낯설게 느껴졌고, 이미 알던 친구들과는 코로나에 대해 신세한탄을 하며 먼 거리 대화를 나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참을만했다.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동 마는 동하며 수업하시는 몇몇 선생님들이었다. 물론 선생님들은 수업시간 내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당연한 듯 마스크를 턱이나 귀에 걸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점심시간에는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시간이다. 그나마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다행이긴

가장 바뀐 것은 어쩌면 쉬는 시간의 모습이다. 쉬는 시간이 되면 각 교실에 선생님 한 분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지켜보신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장난치는 당연했던 일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친구들과 붙어만 있어도 선생님의 제제가 있다. 너무 안타깝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마스크끼고 수업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하신다. 학생들은 시험 대형으로 앉고 하루에 두 번 책상을 소독 한다. 점심시간에도 거리두고 줄을 서야 하고 급식소엔 자리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왁자지껄 시끄럽기만 했던 급식소가 도서관보다 조용해졌다. 많은 것이 신기하고 나름 잘 지키는 학생들도 대단한 것 같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다르다. 하지만 잘 헤쳐 나가고 서로를 배려하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친구들과 항상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자주하곤 한다.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힘내고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삼현여고2 허윤지기자]

했지만 칸막이 건너,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고 이야기 하는 것까지 막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그런데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 건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양치질 할 때 다. 식사 후에 많은 학생들이 양치질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 보여 조금 걱정이 됐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마스크는 계속 끼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집에 돌아갈 때 쯤이면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기까지 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했다. 그나마 우리는 격주로 등교를 한다. 일주일 동안의 학교생활도 엄청 힘들다고 느꼈는데 고3 선배들이 새삼 대단하다 싶고 이래저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진양고2 박서진기자]



3월이 아닌 6월에 등교를 했다. 초유의 일이다. 분명 재난상황이고 위기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졸업식도 입학식도 없는 학교라니 놀라움의 연속이다. 학교에선 마스크를 내릴 수 없다. 첫 등교 때 마스크 장시간 착용이 처음이라 두통이 있었다. 다음날부터는 관찮아졌지만 답답함과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날씨는 계속 더워져 가고 있다. 에어컨이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차는 날씨에 마스크 안은 생각이상 불쾌하고 답답하다. 하지만 이만큼이나 더 힘든 것이 있다. 등교가 늦어지면서 학교 일정이 빡빡하고 혼란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선 매일 수행평가를 치르고, 밀린 시험일정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니 이에 맞춘 학생들의 준비도 쉽지않은 않다. 이뿐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의 고충은 더욱더 커져만 간다.

온라인으로만 배우던 것으로 수행평가를 치르고, 등교하자마자 치르는 중요한 시험의 연속은 고등학교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에게겐 힘겹지만 하다. 정신적 압박도 심하다.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적 학교생활은 생활 곳곳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만 같다. 코로나 이전의 학생생활이 이렇게 그리울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명신고1 광경규기자]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힘들더라도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데 원망과 미움의 코로나19지만 반전 효과가 있었다. 행사나 모임이 사라지고 출면서 가족들이 집에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부모님이나 우리들도 각자의 일로 대부분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코로나19는 가족들을 집으로 몰아 주었다. 기억이 가물거렸던 가족끼리의 저녁

식사는 자주 마주하는 일상이 되었다. 부모님과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 수다 떠는 서로를 보고 있으면 소홀했던 가족애가 느껴졌다.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반전 효과로 코로나가 만들어 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코로나 이후에도 기억하고 이어 갔으면 좋겠다.

[진주공고1 하해주기자]

나의 하루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18년간의 내 일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학교를 가면서, 학원을 가면서, 어디를 가든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게 되었다. 원래 마스크는 항상 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엄마가 억지로 강요해서 썼던 기억이 전부였다. 지금은 마스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기 예사고 공공장소에서 작은 기침조차 조심스럽기만 하다.

또한 코로나는 나의 생활 곳곳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친구들과 이랑 점심, 저녁을 즐겨 먹었으며 항상 노래방도 가고 한번 씩 놀이공원, 수영장을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이젠 좋아하던 그 무엇도 맘껏 할 수 없게 되었다.

10년간 다녔던 학교생활도 완전

히 바뀌어 놓았다.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집에서 수업을 하더니 상상을 못했던 일상이었다. 3개월이 지나서야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났다. 코로나 방역이 가장 중요해진 학교 생활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다.

너무도 당연했던 친구들과의 수다, 점심식사의 즐거움, 친구들과 손잡고 팔짱끼고 교정을 거닐었던 일상이 금지되었다. 선생님들이 수시로 제재를 하신다. 슬플 때가 많다. 언제까지 이런 날이 지속되어야 할까? 그냥 공기처럼 존재하고 권리처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나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라고 코로나19는 참 밍게 너무 밍게 가르쳐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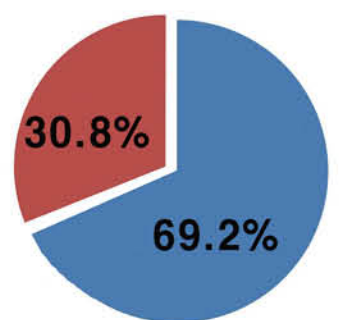
[리얼거리미터] 청소년의 성(性)을 묻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불법, 처벌 대상?

6월 어느 날씨 좋은 일요일, 차없는거리에 필통 기자들이 뿔뿔히 뿔었다. 미리 준비한 판넬과 탁자를 설치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받기 위해서다. '리얼거리미터'는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나 주제를 정해 거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번 호 이야기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이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한 최근 큰 사회문제로 충격을 준 'N번방 범죄'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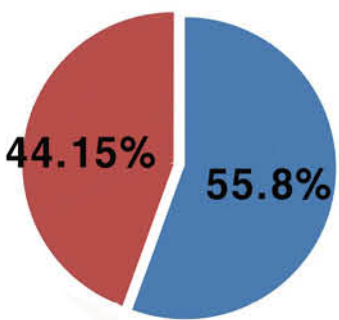
미성년자 성관계 가능하다 69.2%



■ 미성년자의 성관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성관계 안된다

성관계는 19금인가?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설문 결과 전체 69.2%가 '가능하다'에 투표했다. 남녀로 구분해 찬성비율을 보면 남성이 78%, 여성이 63%로 남성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였지만 비슷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성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을 고려해보면 의외의 결과다. 연령대로 보면 10대는 남성이 15:3으로 압도적으로 성관계에 개방적이었고 여성은 23:11로 전체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30대 이상 투표자들은 미성년자들의 성관계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는 무조건 범죄 44.15%



■ 합의하면 인정한다
■ 무조건 범죄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고 반윤리나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결과 무조건 범죄라는 답변이 44.15% 합의하면 인정한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55.8%였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좀 달랐다. 남성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51.6% 범죄라 투표했고 반면 오히려 여성은 '합의하면 인정'이 60.8%로 더 높았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현실과 성문제에 대해 보수적일 것이라는 인식에 비춰볼 때 반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보인다. 즉 '합의',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이번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동의가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가 16세미만이면 처벌이 된다.

성범죄 처벌수준 '매우 높여야' 100%

마지막 투표지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다. 투표에 참여한 78명이 약속한 듯 모두 한 곳에 스티커를 붙였다. 처벌수준을 '매우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관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끔찍한 성범죄들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느껴지는 투표결과였다. 처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아니더라도 분명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자 정의다. 적어도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N번방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얼거리미터' 스티커 투표 옆에는 탁자를 마련해 포스트잇에 지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도 했다. 주제는 'N번방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물음이었다. 충격적이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적어 주었다. 총 43개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판넬에 붙어졌다. 다양한 의견들, 여러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느껴졌다. 대표적인 내용을 추려 보면 제일 많은 의견은 신상공개와 사형으로 각각 8건이었다. 신문에 실을 수 없는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빼고 포스트잇에 적힌 글을 옮겨 본다.

- 처벌해야 한다. 감빵 가야 한다.
- 전체 신원공개, 판결문 공개, 반성문 받아서 감형되는 것 없애기
- n번방 가해자들은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받아야 한다.
- 싹 다 잡아서 처벌한다.
- 금마들은 사형 때려야 한다.

- 평생 감옥에 썩게 하고 신상공개 하라
- 다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감형 되는 것 없애야 한다.
- 평생 감옥살이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 영상을 본 사람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
-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성범죄자 신원공개 전자 목걸이 채웠으면 한다.
- 성 착취 영상,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징역
- 신상공개 혹은 사형은 기본
- 제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처벌을 높여주세요.
- 관련자 모두 명단 공개 합시다.
- 피해자에게 한 행동 똑같이 되돌려 주기
- 강력한 처벌 N번방 들어 간 놈 신상공개
- 처벌을 마땅히 줘야 한다.
- n번방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처벌에 있어선 거세와 사형을 해야 한다.

필통기자 취재 후기



[곽경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를 한 n번방 가해자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도 n번방 가해들을 강력처벌하자는 의견을 표했고, 국민청원 또한 수 백만 명의 동의를 얻은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엔야말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벽히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서 그 어떤 법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인터넷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더 꼼꼼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로서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혜기자]

나는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임신하게 된다면 그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범죄다. 말 그대로 미성년자고 위협하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 많은 피해자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런 지옥이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범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또 비슷한 일을 반복하게 방치한다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성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1월20일부터 폐지된다.

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다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했으나 이날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

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제작·배포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성착취 영상물·제작·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상습범은 가장 처벌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그동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1월20일부터 폐지된다.

[취재/곽경기(명신고1), 하혜주(진주기공1)기자]

[맏칸년맏반] 2019 진주여고 1학년 9반편

3년 내내 정다운 반 안 되나 HOXY??



2022년 1월9일 19시 학교 앞 알지?

진주여고에서 남다른 텐션을 가진 반을 찾고 싶다면 바로 1학년 9반이다. 특히 1학년 9반의 자랑 정다운 선생님을 놀릴 때 단합이 단연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다. 게다가 반전매력으로 공부까지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다. 1학년 9반을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 친구가 곤경에 처한다면 다 같이 달려가서 도와줄 정도로 사이가 좋은 추억의 9반. 우리 반 친구들아~ 2학년에도 파이팅!! 애들이 우리 2022년 1월9일 19시 학교 앞 알지??



담임 정다운선생님

정다운 선생님은 전공인 과학과 미술, 시 등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올라운더 쌤으로 타칭 진주여고의 간판으로 불린다. 교무실의 비주얼 담당이자 막내신데 스스로는 썩스러움을 많이 탄다. 다운 선생님께서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완벽이다. 사진은 선생님 생신날 아이들과 놀면서 찍은 사진으로서 9반 모든 아이들의 카톡프사가 될 정도로 명성 높은 사진이다. (선생님 2학년, 3학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요ㅠ)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하린	상견례 프리패스상	♥구합지줄 보고 싶다♥ 약속 빠지면 뽀^^
구서영	알약 부서주는 남자	뜨르른
권진희	목소리 좋고 나랑 잘 맞는 사람	심심해..
권태희	나재민처럼 생긴 착한남자	심심해ㅠ
김예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쫄.
문정민	우리 집 준호	양정즈 포에버♥
박수빈	귀여운 동물들이 최고야/사람은 믿을 거 안 됨.	하고 싶은 양
박수연	이민혁	구합지줄 알라뷰
백지연	영앤리치 톨앤헨섬	zyo...ni
오수진	말 이쁘게 하고 보조개 있는 남자	구합지줄 알럼 땀인 알럼 한교르 이웃인 나랑 놀자 하린이
유민재	영훈이	이제 1-9가 아니지만 정말 1년 동안 즐거웠어. 2022년 알지?!!
윤지우	굳이 귀여운 척 안 해도 귀엽고 멋지고 책임감 있고 예의 있는 사람.	우준이 꾸준하♥/주honey
이영은	이이랑 백지연 같은 개망나니 말고	곱창 전골 먹고 시뽕
이예린	뽀뽀보이	양정즈 포에버♥
이이랑	탈색한 주호민	아수라장
이현서	큐티보이	올디스 팔빙수 사줘
정서윤	내 눈에 잘생긴 사람	@zesong_yo
정시후	나한테 직위 물려주고 어서 죽어줄 잘생긴 황제폐하	자기다 싶으면 연락주세요
정예림	나랑 잘 맞는 사람	정미랑 2학년도 아자
정유진	자기 일 할 때 멋있는 3개 국어 가능한 남자	성공해서 다운샘이랑 밥약하기♥
지수연	없음	없음
최정인	척하면 척인 사람	르로이랑 2학년도 아자
최준희	총재 같은 미대오빠	강하린구서영오수진백지연유민재 정서윤박수연최한결사랑해♥
최한결	키 180 옷 잘 입고 웃을 때 보조개 이쁘고 다정한 남자	구합지줄 이거 보면 2-3반 오기~♥
하경진	킬미힐미 차도현	양정즈 포에버♥

2020년에도 멋진 친구들~



강하린:분위기메이커 나무늘보다. 9반 친구들 모두가 하린이를 귀여워한다. 수업할 때와 쉬는 시간의 온도차가 심하지만 착한친구다. 이랑이와 뎀앤더머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듣는다. 또한 디저트를 먹을 때 초코 아니면 안 먹는다라는 까다로운 입맛을 가졌다.



구서영:9반 대장이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으며 반을 잘 이끌었다. 얼굴은 곱고 도도하게 생겼지만 입만 열면 켄다. 눈썹 만지는 걸 좋아하는 변태 같은 취향. 또 국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릇째로 마시고 다른 친구들 끼까지 뺏아먹는다. 개원모에서 모 아이를 맡고 있다.



권진희:9반 시크함을 맡고 있다. 처음 보면 시크도도 하지만 알고 보면 감쪽한 고양이이다. 특히 밥을 먹을 때 다 매운 것을 못 먹어 투덜거림이 심해진다. 연락을 자주 안하긴 하지만 이제 고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반에 문정민이라는 열렬한 추종자가 있다.



권태희:이예린이 첫째 딸로 여기는 잘 웃는 친구.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고 11시면 잠을 자는 새 나라의 어린이다. 웃을 때는 입동굴이 생기지만 슬프거나 우울할 땐 시웃 입이 되어 특히 최정민이 이 친구의 입을 좋아한다.



김예람:항상 웃으며 다니는 마음씨 좋고 정 많은 친구로 별명은 라마이다. 라마로 18년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수업시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우리 반 프로 집중러다. 특히 영어시간은 눈알이 튀어 나올 정도로 더하다.



박수연:우리반 대표 문어발이다. 너무 많은 남들을 좋아한다. 성격도 좋고 유쾌해서 친구들이 좋아한다. 큰 키에 귀엽보직한 페이스를 가졌다. 참고로 애는 승마장에 가면 안 된다. 너무 감쪽해서 말이 안나오니까...



백지연:처음 볼 때는 도도해보이지만 알고 보면 엄청 친절하고 착한 친구다. 공부 또한 성실하게 하는 친구.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몸매까지 엄청 좋아서 반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오수진:우리 반 대표 이쁜이. 처음엔 낯을 가려서 도도했지만 낯가림이 풀리면 순식간에 수다쟁이가 되고 혼잣말도 잘해서 아무도 수진이를 말리지 못한다. 웃으면서 팩트 폭력 하는 것이 매력. 몸매도 이쁘지만 얼굴은 더 이쁘다.



유민재:9반의 완소퍼펙트 부반장. 큰 키와 완벽한 비율의 소유자며 성격이 끝내주게 좋다. 말투에 귀여움이 묻어있는 사랑스럽고 예쁜 친구.^^ 요새 로두두 킹덤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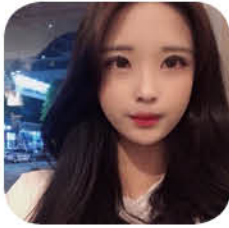
윤지우:우리 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다른 친구를 잘 도와주는 착한 심성을 지녔으며 항상 다꾸 중이다. 경진이의 멘탈이 깨질 때면 품을 내어주는 공돌이적 모먼트를 보여준다.



이영은:학년 운동 1등인 운동하는 언니다. 체대를 준비생인데 공부도 잘한다. 첫인상은 무섭기도 한데 친해져 보면 허당미 우주최고. 넘쳐나는 애교와 엄청난 노래실력은 반전이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엄청난 승부욕. 근대화나 있다가도 10분 뒤면 웃고 뛰어다닌다. 사진에 실물을 못 담아내서 친구들에게 혼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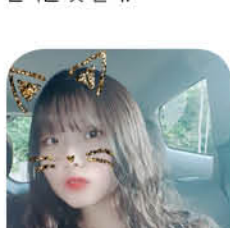
이예린:우리 반의 대표 키작녀 겸 공식 괴염이. 예린이라는 멸칭한 이름을 두고 항상 예뻐이라고 자신을 칭하는데 반 공부1등이다. 미스터리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자고 있고 우리반 분위기를 띄워주는 친구다. 또한 양정즈 감독이며 개원모에서 원숭이를 맡고 있다.



이이랑:우리 반의 공식 기욤이 담당이다. 첫인상은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친해지면 재밌고 마음이 어린 애교 쟁이다. 화나면 무서운이건들이면 안 된다. 하린이랑 뎀앤더머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또한 카페에서 민트 초코만 찾는 민트초코 빠순이다. 맨날 먹어도 안 질린다고 한다.



정서윤:9반 대표 셀러브러, 한결이 1호팬이다. 먹이를 물면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장난을 친다. 9반 친구들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프로불참러. 불참으로 지연이한테 눈치받 먹게 한 두번이 아니다. 학교에선 부지런하지 않은데 본색은 부지런한 모순형이다.



정예림:우리 학교 필통기자다. 반에서는 쟁쟁이. 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소설책에 미쳐있다. 애교와 스킨십 장인으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 나온다. 이집트 역사를 좋아해 이집트의 아부심벨 신전을 가는 것이 소원이다. 요새 빅스비랑 정미랑 게임을 즐긴다.



정유진:이 친구는 진짜 뽀뽀한다. 프로뽀. 못하는 거 없는 만능인. 언제나 바빠서 옆에서 지켜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ENTJ의 정석이지만 초딩 같을 때가 있다. 엔티티 영상을 볼 때면 빕구미 넘치게 춤을 춰 교실을 장악한다.^^



최준희:9반 미대언니로 통한다. 매일 젖은 머리로 30분에 세이프 하는 준희. 한 번도 학교에 일찍 온 적이 없다. 패션스타일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맨날 구합지줄 모임에서 걸음에 느려 정서윤과 함께 뛰쳐지는 역할을 하며 연락도 끊겨 이 소개조차 정서윤이 써줬다.



최한결:정서윤 피셜 정서윤따까리 최한결. 맨날 서윤이 괴롭힘을 피한다고 뛰어다닌다. 귀여워서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팩트 폭력이 일상이라 안 친한 친구들이라면 주의하기 바란다. 미래 컴공과로써 공대 언니라는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경진:수천수학천재. 과천(과학천재)인 친구. 생긴 것과 다르게 지각쟁이라서 선도부장인 예뻐이에게 지각비를 가장 많이 수탈당한다. 자주 안 감는 머리와 빛나는 이마가 매력. 양정즈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고 있다. 참고로 개원모에서 개구리도 맡고 있다.



신청 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요약 설명을 보내주세요.

[필통실험실] 코로나19가 만든 달고나 커피 만들기



노동 집약적 커피! 몇 번을 저어야 달고나 커피를 맛 볼까?



요즘 핫한 달고나 커피! 한 예능에서 마카오의 카페 점원이 아이스커피를 주문받자 커피 가루+설탕+물을 믹스해서 400번 젓고 준 것이 유행의 시작점으로 유튜브들과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너도나도 핫하게 만들면서 대세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1000번 저어서 완성한 커피나 수천 번 저어야 완성되는 계란찜 등이 유튜브에 등장하고 SNS에 퍼져가면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고나 커피 열풍이 불고 있다.

재료도 간단하고 방법도 간단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도전해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400번 젓기! 과연 400번만 저으면 끝날 수 있을까?

달고나 커피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일반 편의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커피 제품과 우유에 타먹는 코코아 가루도 가능하다는 정보로 각각 카누와 자딩에서 나온 커피 제품과 우리가 평소 우유급식을 할 때면 타먹는 제품과 비슷한 초콜릿

제품을 구입해 실험을 진행했다. 각 제품에 들어있는 한 봉지의 양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종이컵에 각각 비슷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을 맞추었다.

준비물은 카누 13.5g(2개), 자딩 에스프레소는 동일했고, 네스퀵 16.5g(1봉지 반), 설탕 각 세 스푼, 뜨거운 물 두 스푼 반이다. 기호에 따라서 양을 더 추가하거나 설탕을 살짝 더 넣어도 되지만 달고나 커피를 처음 만드는 초보자들은 비율을 1:1:1을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기 쉽다고 한다.

저을수록 점점 더 색이 변해간다?



손목과 팔이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재료를 모두 준비를 했다면 그냥 사정없이 막 저어준다. 그냥 하염없이 저어준다. 처음엔 이게 색이 너무 까맣고 물 같아서 이게 진짜 만들어지는 게 맞나? 잘 못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도 들었지만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그래도 몇 번 섞으니깐 색이 조금씩 탁해지면서 갈색으로 변한다. 진짜 열심히 열심히 저어서 400번은 훨씬 넘어서 한 4000번 넘게 젓고 나니깐 약간 모래 빛갈? 황토색이 나왔다. 정말 팔 부러질 뻔했다. 실험에 참여 한 필통기자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 하면서 파스 값이 더 나오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모든 실험은 동일한 방향으로 오로지 손으로 저어서 완성했다.(절대 도구를 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두운 갈색

의 커피색이 점점 연한 황토색으로 변하고 그 느낌 또한 찜뭉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도전해 보면 알겠지만 이 순간 묘한 희열감이 생겼다.

시식평? 카누로 만든 것이 가장 맛있다?



달고나 커피가 완성된 후 종이컵 3분의 2에 동일한 양의 우유를 넣고 달고나 머랭 각 2스푼을 넣었다. 카누 및 마일드 카누의 맛은 비교적 비슷했으나 필통 기자단 기자들의 시식 평으로는 카누가 조금 덜 달고 풍미가 있다고 했다. 네스퀵의 경우는 달고나 커피처럼 만들려면 설탕 대신 생크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진득한 머랭은 완성됐지만 너무 달고 맛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원조 카누로 만든 것이 가장 인기 있었다.

초보자들이라면 일단 즐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 수 있는 1:1:1 레시피를 추천하지만,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개성 있는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이다. 물론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팔이 매우 아프지만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재미있는 실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취재/ 안서진(진주여고2), 김태희(진주제일고1)기자]

달고나 커피, 저을수록 찜뭉해지는 과학



취해지는 과정에서 유입된 공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비밀은 단백질에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나뉩니다. 단백질을 빠르게 저으면 일시적으로 단백질의 꼬여있는 구조가 풀리며 친수성 아미노산은 물과 결합하고 소수성 아미노산은 공기와 결합해 용액 속에 공기 방울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샴푸나 비누 같은 계면활성제가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물 분자와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설탕을 넣어주면 점도가 높아지며 공기 방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거품이 안정화됩니다. 즉 크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효과는 식품 제조 과정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머랭입니다. 계란 흰자와 설탕을 이용해 만드는 머랭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요, 흰자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으로 거품을 만들고 설탕을 더해 크림 같은 식감을 만듭니다.

달고나 커피 vs 달고나 과자, 완전 다른 원리

과학적인 관점에서 달고나 커피와 달고나 과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선, 두 음식 모두 갈색빛을 띠지만 이런 갈색을 만들어낸 화학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달고나 커피의 갈색은 마이아르(maillard) 반응, 달고나 과자의 갈색은 캐러멜화(caramelization) 반응 때문에 나타납니다.

마이아르 반응은 환원당과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이 높은 온도에서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인스턴트커피를 만들 때 커피콩의 향과 맛을 더하기 위해 볶는 과정에서 마이아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갈색 물질(멜라노이딘)이 커피의 맛과 향,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마이아르 반응과 비슷하지만 반응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아미노산 없이 당류가 산화되며 고분자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고분자가 갈색을 띕니다.

[진주청협 이야기]

진짜 진주 청소년을 위한 일을 고민할 것입니다



윤현중 회장 취임, 새로운 청협으로 재도약 준비
진주시장, 진주교육장 간담회 청소년에 관심과 지원 요청

진주시 청소년단체 협의회는 현재 진주 지역에 있는 진주YMCA,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서부연맹, 진주YWCA, 진주흥사단,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청소년 불교연합회, 더 플레이 등 청소년단체 9곳을 소속 단체로 둔 연대 협의체다. 그동안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토요일 가족캠프, 청소년 우리지역 알기 향토탐방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진주 청협이지만 그동안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객관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부 단체들의 결속력이 떨어지며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4월21일 청소년단체협의회 제28차 정기총회에

서 협의회 회장으로 윤현중 현 진주YMCA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청협은 지난 6월16일과 24일, 진주시장과 진주교육장의 연이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선 진주시의 청소년 전담 조직 부서를 요청하고 진주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청 광장을 청소년문화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주시와 교육청 모두 앞으로 청협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고민하기로 했다.

윤현중 회장은 “그간 우리의 관심은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에 집중됐고 정

작 청소년의 미래와 꿈의 틀을 마련해 주는 일에는 소홀했다”며 “청소년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협의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 적극적 활동을 예고했다.

또한 진주청협은 항상 지역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진주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열린 사고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도록 청협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통편집국]



[맷캉년맷반-신청] 선명여고 3학년 5반편

코로나19도 꼼짝 못하는 독보적인 매력, 선명여고 3학년 5반!



선명여고 3학년 5반!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우리 반!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친화력으로 몇 년 지기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반! 쉬는 시간에는 활기차고,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인 반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 모두 자신의 길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최고의 반이다! 코로나19가 가장 원망스럽고 억울한 3학년이지만 '다 잘 될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반만의 좋은 추억'을 기대하며 필통의 '맷캉년맷반'의 문을 두드렸다.



우리반 '이벤트녀' 허미옥 담임선생님!
우리 학교의 전문 과목 선생님으로서 회계를 끝내주게 잘 가르치신다. 또 반 친구들을 딸 같이 아끼시며 자잘하고 재미난 이벤트를 많이 열어 주신다. 하지만 몹시 깔끔한 성격으로 청소시간이면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 저희 청소 열심히 할게요.♥ 지각도 안 할게요.♥ 우리 반 선생님이 짱!♥

나의 이상형 & 친구들이 보는 나

이름	이상형	친구들이 보는 나
강민승	눈,코,입 잘생긴 남자	뚝 부러진 Year
김지안	BTS 전정국	시크녀
김현진	착한 사람	은근 웃긴 애
명한결	배그 잘하는 사람	영덩이가 예쁨
박지민	큐티 BOY~	밀면집 딸
박지후	까만강아지	인절미 강아지
배서현	게임 잘하는 강아지상	자격증 취득녀
오경민	기독교 BOY~	갓 태어난 망아지
오유진	지나갈 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놈	쌈관중
오지영	손에 찔릴 있는 남자	눈썹여신
이다경	깜냥	마틸다
장예은	이태진 내 사랑 내고임 ㅋ	핑핑이 공주
정소이	변백현	우리 반 대표 귀요미
정지은	착한 사람	둥글둥글 도토리
주정은	강아지상	허언중 만렙
하주현	양아치상	파워블로거
하지영	배려심 있고 재미있는 사람	신현준
하지윤	귀여운 사람	리액션 부자
한사랑	왕자♥	뽀로로 루피



[맷캉년맷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반을 필통을 통해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면 신청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작성해 필통 공식 메일 feelong1318@daum.net 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feelong1318로 보내 주세요. 남, 여학교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정된 반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①신청 반 ②신청자, 연락처 ③신청 이유 ④지면을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간략한 계획
※맷캉년맷반의 구성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반이 자유롭게 내용을 기획해도 됩니다.

존재감 빛나는 우리반 친구들



강민승:체고에서 전학 온 아주 당차고 발랄한 아이다. 과거 태권소년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현재에는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 반의 모범 소년로 공부를 아주 잘 한다. 가끔 엉뚱한 드림을 치는데 애들이 웃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꾸준히 드림을 연구해온다.



박지민:동냥이, 학교 봉사 동아리인 인터랙트의 부장이다. 진짜 귀엽고 깜찍하며 입담이 좋아서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다. 또한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고 성대모사를 잘 한다. 특히 윌리엄을 잘 따라한다. 그리고 많은 애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진짜 밀면집 딸은 아니다.



박지후:같은 이야기라도 이 친구가 하면 왠지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아주 귀엽고 말랑말랑한 외모를 가졌다. 우리 학교 댄스부 부장으로 춤만 추면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로 돌변하기 때문에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학교 오기 싫어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엄살쟁이다.



배서현:우리 반 반장이다. 학교 대표로 장학금을 받을 만큼 굉장히 똑 부러진 친구. 웃을 때 눈이 매력적인 반달 모양이 되고 얼굴이 몹시 작은 편이라 사진을 같이 찍을 때면 본능적으로 그녀의 옆을 피하게 된다. 각목 인형으로 가끔 빼적거리는 게 그녀의 특징이다.



오경민:반 대표 모델이다. 몸매도 좋고 상큼한 스타일로 반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집에서 베이킹을 즐기는 등 요리에도 관심이 많다. 아직 남자친구는 없으니 연락요망♡ 이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도와주는 멋녀다. "스타일프렌즈" 당장 방문해 구매 클릭.^^



오유진:트윅킹을 진짜 잘 한다. 섹시한 영덩이로는 그녀를 따라갈 자가 없다. 하지만 잡자는 모습은 새근새근 아기 같은 귀여운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자기 자리가 예뻐서 밀지라해서 항상 출다고 칭얼칠 때 대담함을 찾는 다.



오지영:아주 그냥 훑쳐 달아나고픈 풍성한 머리칼을 소유하고 있다. 딱 봐도 조선시대 미녀다. 처음에는 낯을 좀 가리지만 친해지면 아주 웃긴 친구다. 중국 아이돌 왕준개를 좋아한다.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화식녀. 조선시대 미남 연락 주세요.



이다경:마틸다를 연상하게 하는 깔끔한 단발이 아주 인상적이고 도도하며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보이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학교에서는 스누피 쿠션과 스누피 컵을 놓지 못 하는 스누피 애착쟁이다. 가끔 놀고 싶어 학업을 빼지긴 하지만 우리 반 유일한 미술 입시생이다.



장예은:우리 반 유일한 공신이다. 전 역만을 기다리고 있다. 가끔 엉뚱한 면이 있으며 하얗고 말끔한 피부가 아주 탐난다.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매일같이 칭찬해달라고 선생님들께 애교를 부린다. 선생님들은 반장에게 칭찬하라고 떠민다.



정지은:차칭 둥글둥글 도토리. 매력적인 웃음소리를 가졌다. 수업 시간에 한번 웃음이 터지면 애들도 다 따라 웃게 된다. 그리고 수학이랑 체육을 잘 잘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대답도 세상 잘한다. 김현진이랑 환상의 콤비. 가끔 정은이가 질투한다. 우리 반의 복덩이♥



하주현:얼굴에 인디언 보조개가 인상적인 친구다. 프로 다이어터로 급식 먹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항상 늘씬한 몸매를 유지한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여성. 또 메이크업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중 특히 눈썹이 최고다. 아침마다 생토마토를 챙겨 먹는다고 한다.



하지영:우리 반에서 코가 쥔 큰 코크다스다. 전직 필통 기자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놀릴 때 반응이 귀여워서 매일 아이들의 놀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영아 우리는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쿡썩이 가장 잘 맞는 친구다.

Episode ★사진찍기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해 소풍, 체육대회, 축제 등 학교 행사가 다 취소가 돼서 단체사진이 없었다. 근데 필통에 단체사진을 올려야 해서 급히 날을 잡아 학교 마치고 담임 선생님께 단체 사진을 찍어주셨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이었다.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다 착용하고 찍으려니 또 좀 이상했다. 단체사진을 찍으려면 친구들이 모두 가까이 붙을 수 밖에 없는데 교실에서 그렇게 찍으려니 또 좀 걱정되고... 코로나19가 참 대단하다 싶었다.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참 어렵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니 말이다. 결국 선생님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전체사진을 찍으셨다. 이랬다 저랬다 웃픈 이야기가 되었다.



한사랑:우리 반 순수 결정체 부반장이다. 마치 순두부 같은 하얗고 순수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은 부정하지만 뽀로로 루피 닮은꼴로 유명하다. 또한 웃을 때 치아가 잘 아를 땀다. 이다경이 들어간 우산통에 발이 찍혀 김스를 하고 있다.

[신청/ 배서현외 선명여고 3-5 친구들]

[씨네통통] 코로나19 이후 첫 영화, 침입자

코로나19 시대 영화관은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까?



줄거리

25년 만에 돌아온 동생, 나는 그녀가 의심스럽다! 얼마 전 사고로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건축가 '서진'에게 25년 전 실종된 동생을 찾았다는 연락이 온다. 처음 본 자신을 친근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유진'이 어딘가 불편한 '서진'과 달리 가족들은 금세 그녀

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유진'이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서진'은 동생의 비밀을 쫓다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에 그녀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추적 끝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개봉 / 2020.06.04
등급 / 15세 관람가
장르 / 미스터리, 스릴러
국가 / 한국
러닝타임 / 102분
감독 / 손원평
출연 / 송지호, 김무열
흥행 / 대만,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전 세계 26개국 선판매

주말 한 상영관에서 20~30명이라니...

올해 코로나19 이후 극장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였다. 대부분의 영화도 개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지난 4월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개봉이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5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영화도 극장 개봉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어쩌면 코

로나19이후 첫 개봉영화가 '침입자'였다.

필통기자들은 과연 극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또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지, 궁금증을 안고 6월 7일 일요일 진주시내 개봉관인 '롯데씨네마'를 찾았다. 예상대로 극장은 주말임에도 썰렁했다. 상영 영화가 적은 것도 있지만 관객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었다. '침입자' 상영관에는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관객이 20~30명 수준에 그쳤다.



한 번 볼만 해 55.9%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 관람 한 영화 '침입자'의 관객 평가는 어떠했을까? 마스크를 낀 채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영화 내용보다는 극장나들이에 더 큰 의미를 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평점은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 보기 힘들었다. '10점 만점에 10점'과 '강력 추천'이라는 최고 평가에 투표한 관객은 84명 중 불과 17명, 20%에 불과했다. 그래도 '한 번 볼 만 하다.'라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내린 관객이 가장 많았다. 전체 관객의 55.9%였다. 완전 만족



감과 강력 추천 의사는 약했지만 충분히 즐길만한 정도의 영화라는 관람평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배우 송지호에 대해 언급하는 관객이 많

평가	여성 (명)	남성 (명)	전체 관객 (명)	비율
10점 만점에 10점	3	2	5	6%
강력 추천	6	7	13	15.5%
한 번 볼만 해	26	21	47	55.9%
그저 그렇다	5	11	16	19%
돈이 아깝다	1	2	3	4%
절대 보지마	0	0	0	0%
합계	41	43	84	100%

았다. 최근 송지호라는 배우가 주로 TV 예능이 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연기력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필통기자의 관람평



▶오지원(진양고2)기자

송지호는 런닝맨 이미지가 익숙한지라 영화는 큰 기대감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송지호와 김무열은 물론 조연배우들까지 모두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집중력을 불러 일으켰다. 흔하지 않은 전개로 뒤통수를 맞는 듯 한 충격.



▶조예은(삼현여고2)기자



예능으로 유명한 송지호가 출연하는 영화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다.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소름이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았던 당신, 스릴러로 등골이 서늘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강력 추천!

별점: ★★★★★(9점)

돌았다. 스릴러라는 장르에 걸맞게 귀신이 아니라도 흔히 말하는 '갑툭튀' 장면들이 많았고, 그래서 전혀 심심하지 않았다.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나에게 일어난다면 막막하기만 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다.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도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인 것 같다.

별점: ★★★★★(9점)



[취재/ 오지원(진양고2), 조예은(삼현여고2)기자]

코로나19 속 여름 극성수기 개봉 영화 대진표 확정... 흥행작은?

연중 극장이 최대 성수기인 7월 말~8월 초에 개봉될 신작 영화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개봉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다 한 달 앞두고 결정됐다.

일찌감치 7월 개봉을 확정된 연상호 감독의 신작 '반도'는 홍보 일정을 진행 중이다. 1000만 관객 영화 '부산행' (2016년) 후속작인 '반도'는 코로나19로 시상식을 취소한 올해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돼 황금종려상 로고를 포스터에 붙였다. 16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연 감독은 "부산행과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한 가족의 탈출에서 이야기"라며 "부산행을 찍을 장소 헌팅을 할 때 봤던 많은 폐허가 반도의 출발이었다"

고 말했다.

'1000만 배우'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8월 개봉한다. 청부살인 의뢰로 인해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킬러 인남(황정민)과 복수를 위해 그를 쫓는 추격자 레이(이정재)의 사투를 그린 추격액션 영화다. 영화 '신세계' 이후 7년 만에 두 배우가 재회했다. 전체 분량의 80% 이상을 태국 등 해외에서 촬영해 이국적인 볼거리도 기대된다.

'강철비'를 만든 양우석 감독의 신작 '강철비2: 정상회담'도 개봉한다. 전작에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다뤘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실 속에서 관객의 반응이 주목된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한군의 쿠데타가 발생해 3국 정상인 북 핵잠수함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정우성 감독이 유연석이 연기 대결을 펼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



넷'이 이들 한국영화와 맞붙는다. 테넷은 7월 31일 북미 개봉이 확정돼 국내에서도 그 즈음 극장에서 볼 수 있을 듯하다.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첩보전을 그렸는데 놀란 감독의 특징인 시간을 종횡무진 유명하다.

여름 개봉이 예상됐던 '모가디슈' '영웅' '승리호'는 가을이나 연말로 개봉을 늦췄다.

[19금 톡톡] 동물의 신비한 생식기 이야기

동물들의 19금 이야기

0.03cm에서 300cm까지 생식기의 비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게 생식기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존재한다. 바로 '종족 번식'을 위해서다. 동물에게 성관계란 힘들고 많은 공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들에 세계에서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종족 번영을 위해 특성에 맞게 발달한 동물들의 '생식기'는 그 크기부터 모양까지 가지각색이라 인간의 입장에서 신기하거나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동물과 과학이야기니까 19금을 넘나드는 이야기도 재미있는 정보로 읽어 보길 권한다.

특별한 생식기를 가진 동물들

▶ 생식기가 2개? 4개?



뱀과 도마뱀은 신기하게 성기를 2개나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성기는 hemipenes라고 불린다.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반음경이라고 불리는데 평상시에는 수축되어 체내에 있다. 뱀과 도마뱀의 성기가 두 개인 것은 더 빠르게, 더 많이 교미하기 위함이다. 한쪽 고환이랑 한쪽 성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암컷이랑 교미한 후 바로 다음 암컷이랑 교미가 가능하며 암컷이랑 교미 중 나머지 성기는 쉬고 있기에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어떤 뱀은 성기에 돌기가 있어서 한 번 삽입하면 잘 안 빠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생식기에 돌기가 필요할 정도로 암컷 뱀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의 사투는 굉장치 치열하다. 뱀은 한 마리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적게는 5마리 많게는 100마리의 수컷이 '수명이 단축될 정도'의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고슴도치와 두더지를 합친 듯한 비주열의 가시 두더지.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수컷의 성기가 무려 4개다. 이런 경우는 뱀, 도마뱀 등 다리가 없거나 부실한 파충류에게 많이 발견되는데 긴코가시두더지의 경우 네 갈래로 갈라진 수컷 성기는 보기 드물다고 한다.

▶ 꼬리에 달려있는 것은?



거북이는 꼬리에 음경이 같이 있다. 단순히 꼬리인 줄로만 알았지만 거의 음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꼬리와 음경이 같이 있기에 수컷 거북이의 꼬리가 암컷 거북이의 꼬리보다 대체로 더 길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거북이의 꼬리 길이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 나사처럼 꼬인 생식기?



위의 사진은 홍오리의 생식기이다. 암컷 오리들은 본능적으로 수컷의 성기 길이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그 때문에 문어 오리는 수컷 생식기의 형태가 다양하고, 수컷끼리 경쟁이 심할 수

록 음경 길이도 길어진다. 특징은 나사처럼 꼬인 음경 형태이다. 대부분의 오리는 일부일처제이지만, 상당수의 수컷은 이미 짝이 있는 다른 암컷과 강제로 짝짓기를 시도한다. 연구 결과 이런 강제 짝짓기가 성행하는 종일수록 음경이 길고 복잡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밝혀졌다.

▶ 왜 거기 가시가 돌아 있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동물인 고양이. 고양이의 생식기엔 잘 모르는 비밀이 있다. 겉으로 봤을 때 크기가 작고 귀여워 보인다. 하지만 성기의 몸통 부분이 나오면 가시가 돌아있다. 성기 안쪽으로 돌아 있는 가시는 교미시에 생식기가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해주는 이점이 있다. 이는 고양이와 동물 모두에 해당된다. 여러 개체의 수컷 고양이가 하나의 암컷 고양이에게 들이대는 경쟁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고 가시는 교미 후 암컷 고양이의 발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이에나는 암컷도 수컷의 생식기가 똑같다?



사진 속 하이에나는 수컷처럼 보이지만 암컷이다. 성기가 거대하게 튀어나와 있으니 당연히 수컷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암컷이다. 생식기지만 암컷의 클리토리스(음핵)이다. 암컷은 평균 길이 18cm에 직경 2.5cm의 클리토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클리토리스는 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변을 볼 때도 사용된다. 암컷 하이에나는 긴 클리토리스로 새끼도 낳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을 빠져 나오다 새끼들이 많이 죽기도 한다. 하이에나는 암컷도 수컷처럼 생식기가 똑같은 생김새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암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동물이다.

문어의 성기는 다리에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문어는 다리에 성기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수컷의 오른쪽 세 번째 다리 끝부분에는 흡반(또는 빨판)이 없고 도랑이 있는데, 이것이 교접완(hectocotylus)으로 성기 역할을 한다. 결국 문어 암수는 다리로 사랑을 나눈다.

우리네 조상님은 긴 다리로 꿈틀거리는 이 생물을 '글월 문(文)'자를 붙인 '문어(文魚)'라고 붙여 불렀다. 과학적으로 문어의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척추동물과 유사한 눈을 가졌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있어 무척추 동물 중 가장 두뇌가 발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예전부터 이를 간파해 글깨나 하는 물고기로 여겨져 '문어(文魚)'라 불렀다고 하니, 조상님들의 지혜와 통찰력에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최대 크기 VS 가성비 갑?

크기가 작은 동물들부터 알아보면 모기는 약 0.03cm라고 한다. 크기가 작은 곤충인 만큼 당연히 생식기의 크기도 작다. 작은 크기만큼이나 교미시간도 2초, 반면 고릴라를 보면 우람한 덩치 때문에 그곳도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3cm밖에 되지 않는다니 조금 놀랍다.

큰 동물들은 어떨까? 기린은 길쭉길쭉한 키 만큼이나 큰 생식기를 갖고 있는 동물인데 말보다 조금 더 긴 120cm나 된다고 한다. 그 다음은 아마도 코끼리가 아닐까? 코끼리는 수컷의 성기가 160cm로 고환의 무게도 40kg나 된다. 또한 성기 길이를 자기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러운 사람들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흰수염고래. 다양한 동물의 생식기 크기 중 가장 큰 동물이 아닐까 한다. 흰수염고래의 크기는 평균 약 300cm라고 한다. 정말 큰 덩치만큼이나 거대한 걸 갖고 있다.

하나 중요한 건 가성비 아니겠는가. 흰수염고래보다 더 큰 성기를 보유한 녀석은 바로 오리라 생각된다. 오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다르게 엄청난 성기를 가진 동물이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 높은 성기 크기를 자랑하네. 오리의 평균 성기 크기는 무려 42.5cm, 사람 남성의 성기와 비교하면 대략 3~4배는 되는 엄청난 크기다.



[번외편]

동물의 사정시간 얼마나 걸릴까?

야생상태에서의 동물들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다. 시간이 긴 교미 시간은 어쩌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동물일수록 짝짓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먹이사슬 가장 위층에 자리 잡게 되고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이 생기면서 관계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의 사정시간은 얼마나 될까?

속았다! 원앙의 진실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 하지만 실제 원앙은 부부 금실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월동지에서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고, 암컷이 마음에 드는 수컷을 짝으로 결정해 부부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번식 활동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동으로 매년 부부가 바뀌게 된다. 번식 초기에는 암컷과 짝을 이루어 생활하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하면 수컷은 암컷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동물들의 사정시간은 놀랍게도 덩치나 크기에 상관없다. 덩치가 큰 기린과 황소는 모기와 같이 3초, 말은 10초 내외다. 고양이 과인 호랑이와 사자는 20초에서 30초인데 무려 하루에 20번에서 40번을 교미를 한다. 정력하면 떠오르는 뱀은 종류에 따라 사정시간이 다르다. 짧으면 3시간에서 길면 75시간까지 걸린다. 수컷 뱀의 성기는 2개로, 한번 교미가 이루어지면 사정이 되기 전에는 빠지지 않는 구조이다. 암컷의 경우 몸속에 최장 3년까지 수컷의 정자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수컷은 교미가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날아가 몸을 깨끗이 씻어 버린다. 게다가 암컷이 알을 낳으면 모든 양육을 포기한 채 바로 떠나 버린다. 더 웃기는 것은 원앙새 암놈들도 서방질을 한다는 것이다. 원앙새 새끼들의 DNA 검사를 해 봤더니 약 40%는 지아비의 유전자와 판판 이었다.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교미하는 것은 수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암놈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이쯤 되면 원앙이 금실 좋은 부부의 상징은 거짓이라 할만하다.

봉사활동 No-Show? 이건 아니잖아

학생들의 빈번한 No-Show 때문에 골머리 앓는 봉사단체들

대학 진학 시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기록부, 그 중 봉사활동 확인란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고등학생들은 외부나 교내에서 자신의 진로와 맞는 봉사활동을 한 후 인증서를 받아 선생님께 제출한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확인란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다.

얼마 전 진주의 한 단체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고등학생들을 모집했다. 일주일 만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정원(20명)의 5배를 넘는 100여 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정작 당일엔 고작 7명이 왔다. 오지 않은 13명에게 전화했지만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날 이 단체 사무실을 찾은 초등학생 일부는 그냥 돌아갔고, 남은 학생들도 일대일 학습 대신 두세 명씩 짝을 이뤄 수업을 받았다.

이른바 No-Show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다른 사람의 봉사참여의 기회도 막아 놓고 활동 당일이 되도록 그 어떤 전화연락이나 소식을 전하지 않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봉사자들이 있다. 이를 일컬어 '자원봉사 노쇼(나타

나지 않음·예약부도)'라고 한다.

봉사 기관이나 단체들은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해 신청자들을 미리 소집하고 "당일에 꼭 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그럼에도 예약 부도율이 줄지 않아 최근에는 '10% 오버 부킹(초과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쇼'를 감안해 원래 모집 인원보다 10%는 더 뽑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름다운 가게' 진주 시청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에 의하면 학생들의 빈번한 No-Show 때문에 피해를 본 뒤로 한 두 명이 오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인원을 실제로 늘려서 받고 있다고 했다. '노쇼'를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J고의 한 학생은 친구들과 단체 봉사활동을 갔는데 약속한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아 놀랐던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 함께 왔던 친구들은 일이 서너 배 많아져 힘들었고, 주최 측에서는 준비한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 곤란했었다고 한다.

'노쇼'로 몸살 앓는 자원봉사 단체들의 하소연



"'봉사활동 시간 채우라'며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 자녀는 '학교에 일 있다'며 안 나타나" 공부방 봉사활동 담당자 A씨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문자로 '일 생겨서 못 가겠다'고 일방 통보" 대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대표 B씨



"대회 당일 '불참하면 회신해달라' 단체 문자 보내도 3분의 1은 답장조차 없어" 국제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 담당자 C씨

적어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일지라도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자세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라며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주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봉사활동 No-Show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도움을 주겠다면서 약속을 어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묵묵히 땀 흘리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손길을 내미는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까지 퇴색시키는 '자원봉사 노쇼'는 제발 하지 말자. 진짜 무책임하고 나쁜 일이다.

[취재/ 김현도(진주고2)기자]

전동킥보드 씽씽~ 사고위험 고고씽!

500대 위험천만 전동킥보드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은 물건이 곳곳에 보일 것이다. 킥보드같이 생긴 것이 자물쇠도 안 잠겨있고 길가에 버려진 듯 웅기증기 세워져 있다. 바로 '고고씽'이라 불리는 공유 킥보드이다.

수도권 위주로 인기를 끌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학생 인구가 많은 진주에 잇따라 상륙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씽씽과 지쿠터가 각 100대의 전동킥보드를 도심에 배치한 데 이어 6월에는 고고씽이 300대를 평거동·신안동·칠암동·가호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고고씽은 국내 최초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이다. 이용료는 최초 대여 후 5분 1000원, 이후 1분당 100원씩 추가된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자신의 폰에 '고

고씽'이라는 앱을 설치한다. 이후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 면허 인증을 한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대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행 후 앱에서 반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대여가 가능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하나 실제로는 부모가 면허증을 인증받아 킥보드를 대여한 후 학생들이 타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입할 때만 면허 인증을 하고 이후 이용 시에는 인증이 필요 없다 보니 무면허 학생들이 지인 계정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상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도·자전거도로에서만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아예 탈 수도 없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리며 마치 곡예를 방불케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안전관리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경량화 소규모화의 이점 때문에 신형교통수단으로 인기지만 위험천만이다.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장구 없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사의 외면과 이용자들의 무관심으로 보험가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험천만 전동킥보드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면허 없이 이용하거나 안전장비 없이 운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뉴스로 접하게 될 것이다.

[취재/ 김시은(진주제일여고1)기자]

동아리시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동아리활동도 대학입시의 도구가 되어 버린 현실

학생에게 대학입시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인문계 학교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입시일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공부 뿐 아니라 봉사활동, 행사참여, 동아리활동 등도 일일이 챙겨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 누구나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은 어떤 의미일까? 기본적으로 '공부면 공부,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노래면 노래 등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동아리 시간이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유일한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아리시간에 무엇을 하나? 고등학교부터는 동아리 시간도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고 또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호기심과 흥미를 풀어내고 있는가? 동아리는 본디 보다 나은 나를 위해, 지친 하루에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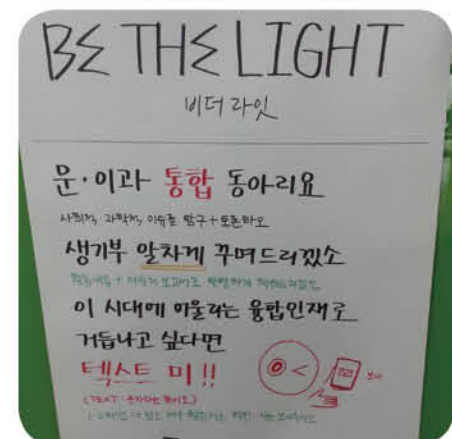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은 뒤편이다. 동아리활동조차 자신의 대입에 연동되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쓰여질 걸 대비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질 뿐이다. 실제 동아리 홍보를 할 때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보다 자신의 동아리에 들어오면 특정 과에 들어가기 쉽다. 어떤 과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기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등등의 내용을 말하며 홍보한다. 결국 대학입시, 진로에 필요하지 않는 동아리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린다.

또 현실 속 동아리 활동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 혹시 여러분들도 동아리 시간을 그냥 편한 휴식시간쯤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동아리

시간 중이 울리면 학생들이 교무실로 우르르 몰려간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는 동아리 시간 동안 휴대폰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시험기간이 도래하면 3~4주 전부터 동아리 시간은 자연스럽게 시험공부를 하게 된다.

대체 동아리 활동은 언제 하느냐 말이다. 진짜 자신의 동아리에 딱 맞는 활동이나 수업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다. 시간이 흘러 연말 생기부를 써야 할 때면 동아리 활동 했던 것들을 부풀려 과장해서 쓰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활동을 창작 수준으로 생기부를 채우기 급급하다. 이렇게 반복되는 동아리 활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 걸까?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선생님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동아리시간이면 바쁜 업무 때문인지 잠시 보고 가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만나



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이니 동아리 활동이 올바르게 진행되리라 쉽지 않다.

물론 잘 운영되는 동아리시간도 있을 것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아리가 대학입시 수단으로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 동아리활동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분명히 동아리의 존재이유에 걸 맞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시간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이 생기부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취재/ 허윤지(삼현여고2)기자]

[알라view봉사] 나의 봉사활동 보고서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름다운 가게'에 가다

아름다운가게(Beautiful Store)는 영국의 옥스팜을 본보기로 하여 2002년 출범한 비영리기구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아름다운 가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사명은 나눔과 순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그 수익금을 제3세계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는 종교적 편향을 지양한다.

아름다운가게의 원동력이자 활력소는 시민의 참여

직접 봉사활동을 해보다



아름다운 가게에 들어서자 매니저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 설명과 함께 간단한 업무를 맡기셨다. 처음 맡기신 업무는 전날 매출 27만 8천원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었다.



(입금 사진 및 통장 사진)

무사히 입금을 마치고 다음 업무로 입고된 의류를 종류 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의류의 많고 다양해서 놀랐다. 정리를 마친 후 가게 안에 있는 물품들을 꺼내고 진열하며 개점 준비를 했다.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개점을 하고나면 손님 응대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큰 착각이었다. 여러 손님이 구경하면서 만지신 의류를 소독해야 했고, 손님들이 의류를 사고 남은 옷걸이를 다시 정리해야 했다.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손님 한 분 한 분 신경 쓰면서 일하느라 예상밖으로 정신이 없었다. 소독까지 마치고 잠시 휴식



을 취하려 했는데 이번엔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업무를 도와야 했다. 계산 업무까지 끝나니 벌써 시계는 점심시간을 가르키고 있었다.

점심으로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제공해주는 컵밥을 먹었다. 인스턴트 컵밥은 처음 먹어 보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가뭄에 단비 같았던 30분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점심시간 때라 그렇지 손님들이 많이 없어 오전 시간보다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물품 기증자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오셔서 30분 정도의 기증의류를 하나 하나 기록하고 정리했다.



(기증의류 정리 사진 및 정리된 박스 사진)

의류 정리를 마쳤더니 어느덧 봉사활동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뒤 봉사 활동을 마쳤다.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조금 정신이 없었다. 가끔 불친절한 손님이 있어서 응대하기가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안 앉지 못해 다리에 통증이 몰려오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러 매장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재활용된 옷을 구매하며 또 다른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바닥청소하는 사진)

사람들이 의미있는 일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런 일을 도울 수 있었던 시간 이어서 마음이 뿌듯해졌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니 칭찬의 말을 건네시는 분들이 있어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아름다운 가게는 그 자체로 참 멋진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름다운 가게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봉사활동도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줘서 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봉사활동으로 손꼽히는지 알 수 있었다. 많은 다른 학생들도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런 기분을 느껴 보길 바란다. / 추천 (별 5개 중 ★★★★★)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
신청은 753-1549 / 751-8845

[취재/ 김현도(진주교2),
배재현(사대부교2)기자]



Q&A 아름다운 가게 그것이 궁금타

Q. 아름다운 가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A. 진주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시청점이고 또 시내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 하나 더 있습니다. 통영에 한 군데 있는데 진주랑 통영에서 시민들이 기증을 해주시면 진주에 있는 되살림터라는 곳에서 물건을 생산해요. 가격표 붙이는 작업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해요.

Q. 봉사활동을 오면 학생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봉사활동 종류는 매장에서 하는 것과 되살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매장에서는 물건 판매 및 기증품을 정리하죠. 매장 청소와 손님을 응대 하는 활동도 같이 합니다.

Q. 1365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고등학생 이상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A. 중학생 봉사자를 받아 봤는데 손님응대와 계산하는 기계를 다루는



(아름다운가게 시청점 차소정 매니저님)

A. 일단 진주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목욕 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학생들이 선뜻 할 수 없는 활동이기도 하구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 활동은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아름다운가게가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된다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Q. 봉사활동 인원이 세 명으로 정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봉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다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인원수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눔이 곧 기부입니다. 구매 또한 곧, "기부"입니다.

것을 어려워하는 중학생들이 많았고, 봉사 활동 신청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가 신청을 하다 보니 학생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진짜 봉사의 모습이 아니라 중학생은 현재 받지 않고 있어요.

를 조정해 보다가 한두 명이 안 오더라도 봉사자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최소인원을 받는 거죠. 자원봉사 노쇼는 진짜 비호감인거 알죠.

Q. 기부물품 중 제한이 있나요?

A. 다른 사람이 바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따라 나뉘어요. 그릇은 깨지지 말아야 되고, 옷은 보풀이 심하거나 찢어지거나 뒤통가 묻었으면 안 돼요. 대부분 의류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의류보다는 잡화, 가전제품이요. 신발, 가방, 그릇, 소형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기증이 너무 없어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Q. 앞으로 봉사활동을 올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봉사활동인데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거나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슬리퍼나 아주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어서 복장부터 아쉬울 때가 있어요. 불량한 복장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박스라든지 바퀴 달린 골개 같은 것들 때문에 다칠 수도 있으니 슬리퍼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봉사활동이잖아요. 나의 마음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 도움이 되는 것이니 열심히 하겠다고 맘 먹어야죠.

Q. 아름다운가게가 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봉사활동일까요?

진주시 청소년 봉사활동 인정기관

자원봉사는 그 정의처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내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때문에 봉사활동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과연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현재 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 인증된 진주시의 대표적인 기관 리스트입니다.(전체 봉사활동기관 중 일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사)진주문화연구소	055-743-1923	진주대로11번길 4,2층(봉곡동)
(사)한국예총 진주지회	055-752-0111	강남로 215(칠암동)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055-742-1778	상대동 33-67번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5-757-1391	모덕로181번길6
경남스트리트댄스협회(심장박동)	010-5655-4825	남강로659번길 6-2(동성동)
경남지역장애인복지협회 진주시지부	055-759-6500	상대동 상대로69번길3
국립진주박물관	055-740-0698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달팽이어린이도서관	055-761-8803	도동로 200-1(2층)(하대동)
대한적십자사 진주현혈의집	055-262-5161	대안동 17-5번지 2층
대한적십자사 경남서부봉사관	055-762-2213	술밭로80번길 7(상평동)
마하어린이도서관	055-753-9922	초창로 55(초전동)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055-755-0760	상대동 314-23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지부	055-741-6355	진주성로 39,2층(인사동)
수화통역센터	055-742-4873	신안로100번길 11-5, 2층(신안동)
아름다운가게	055-741-8845	축석로185번길 12(평안동)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055-759-2626	진성면 동부로 1355,2층

기관명	연락처	주소
어린이전문도서관	055-749-2524	평거로 46(평거동)
진주YMCA	055-747-0833	본성동 6-8번지
진주YWCA	055-755-3463	상대2동 33-106
진주노인지원센터	055-758-2848	장재새미길 53번길 35(장재동)
진주서부도서관	055-749-4710	평거로 249(이현동)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055-754-0016	가호로26
진주시니어클럽	055-747-1950	진양호로125번길22-4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55-763-6677	상대동 33-119번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055-749-2496	진양호로 476(진주보건소내)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055-743-6151	상봉서동 1108-6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44-8484	진양호로 360, 3층(주민센터)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평거로9번길 15,3층(평거동)
진주시지역자활센터	055-747-0179	평거동 399-1
진주평화종합사회복지관	055-746-5480	평거동 392번지
진주환경운동연합	055-747-3800	동진로 34 7층
진주홍사단	055-743-1913	강남로 305,1층(망경동)
한국해양소년단경남서부연맹	055-742-0015	신안동 남강로 539 19

[진주 맛집 맞지] 맛과 행복을 만든다는 망치공장

이렇게 크고 맛있는 돈가스 먹어봤나 욕취? 심쿵쿵 망치공장!



스윙스의 “돈가스 좋아해요?”부터 강식당의 “강호동가스”까지 가히 돈가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주에서도 수제 돈가스로 이름 난 가게들이 여럿 있다. 필통에서는 이번에 sns상에서 엄청나게 큰 왕돈가스로 유명한 ‘망치공장’을 찾아 그 맛과 분위기를 검증해 봤다.



망치공장이라 그런지 식당 입구부터 망치가 따악! 놓여져 있다. 식당 내에도 소품으로 여기저기 망치가 곳곳에 놓여져 있어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돈가스 돼지고기를 펄 때 망치를 쓴다는 의미에서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 아닐까?



망치공장은 오전 11시30분 오픈하고 오후 8시에 마지막 주문을 받는다.

오후 4시~5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이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 이라고 하니 헛걸음 하기 없기 바란다. 대기줄이 있는 때도 많아 예약판도 가게 문 앞에 배치돼 있다.



가게 내부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셀프 코너가 단연 눈에 띄었다.

각종 반찬들과 밥, 스프, 돈가스 소스를 직접 추가해서 덜어 먹을 수 있는 셀프 바가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먹다 남은 돈가스와 음식들을 포장 해 갈 수 있는 포장용기가 마련돼 있다.

수제돈가스 11,000원, 판모밀 7,500원, 모밀냉면 8,000원, 비빔모밀 8,000원, 비빔만두 7,500원, 돌우동 8,000원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다. 국내산 1등급 등심만 사용한 수제돈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의 크기를 자랑 한다. 또 천연재료 육수와 소스를 직접 만들어 건강한 맛을 담아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필통기자들은 수제돈가스와 판모밀, 비빔만두를 주문했다. 다른 수제돈가스 집과는 다르게 나이프로 돈가스를 썰어먹는 게 아니고 가위로 잘라 먹는다. 돈가스가 너무 커서 나이프로 자르다가 몸살이 날지도 모른다. 돈가스가 큰 만큼 고기가 좀 얇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가 질기지 않고 맛나는 편이 많다. 메밀소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등에 들어있는 육수를 그릇에 옮겨 담고 메밀소바를 조금씩 덜어서 파와 다진 양파를 기호에 맞게 첨가해서 먹으면 된다.

식사중인 학생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S고등학교 Y여학생 (돈가스 ★★★★★, 만두는 ★★★)
8fce3b04df8498917f00ee35dd3bfb11_1592810765_10967.jpg
돈가스-지금까지 먹은 돈가스 중 제일 컸다. 돈가스도 정말 맛있었고 가격도 괜찮고 다시 올 것 같은 맛이다. 메밀도 여기만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런 면이 있는데 먹고 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 만두는 괜찮았지만 다시 사 먹을 것 같진 않다.

J고등학교 J남학생 (별 5개 중 ★★★)
돈가스는 생각보다 얇아서 두꺼운 돈가스를 좋아하는 내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여럿이 함께 친구들이랑 먹으러 오기엔 딱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메밀이 제일 맛있었다. 시원하고 좋았다.

J고등학교 H남학생 (별 5개 중 ★★★★★)
엄청 맛있었다. 셀프 바가 배치되어 있어서 좋았다. 사람이 많아 웨이팅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늦은 점심시간에 갔었는데도 손님이 꽉 차 있었다. 그냥 엄청 맛있었고 만족스러웠다.

J고등학교 A남학생 (별 5개 중 ★★★★★)
돈가스가 2인분이라고 적혀있지만 3인분 같았다. 먹는 양이 적어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은 3명이 가는 것을 추천한다.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다. 메밀은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함이 있다. 평소에도 메밀소바를 좋아해서 나쁘지 않았다.



필통기자는 돈가스 맛집 명성이 자자한 평거동 망치공장을 찾았다. 위치는 평거동 엘크루, LH5단지 부근 먹자골목 쪽에 위치해 있다. 평거동이 1호점이고 올해 초전동에 2호점도 오픈했다. (평거점-진주시 새들말로 56-5 1층/ 초전점-진주시 초북로20번길 8 1층)

필통기자의 검증 평가

◆박서진기자(진양고2)

가게 이름이 '망치공장'이라 가게 외부 인테리어 중에 토르의 물니르(망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마블 광팬으로써 귀여운 센스가 입구부터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셀프 바가 따로 있어서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셀프 포장대에서는 직접 돈가스를 포장해가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새로웠다.

돈가스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크기가 더 커서 당황스러웠지만 가위로 잘라서 먹으니 양도 많고 맛도 상상 이상이였다. 개인적으로 돈가스 소스에서 약간 땅콩 맛이 났는데 옛날 돈가스 소스맛과 느낌이 비슷해 더 좋았다. 또한 취재 한 날이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메밀소바가 더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비빔만두는 시원하고 맛있었지만 물만두가 아닌 군만두 파인 나에게는 그다지 입맛에 맞지 않았다.

◆서이현기자(진주고2)

본점인 평거점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가야 하니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가게 내부 인테리어가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졌다. 메뉴판의 주요메뉴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돈가스는 2인분 기준이지만 양이 많아서 3명 이상 먹으려 가면 가성비로는 최고지 싶다. 돈가스가 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생김새인데 칼과 포크가 아닌 집게와 가위로 자른다는 점이 신선했다.

돈가스의 맛은 튀긴 대패삼겹살 같았다. 돈가스는 맛있지만, 식감은 두꺼운 돈가스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면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메밀소바는 육수와 와사비를 따로 제공해서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어 좋았고 또 먹고 싶은 정도로 맛있었다. 비빔만두는 만두를 즐기지 않는 나에게는 별로였다.

[필통 뮤직차트] 와우~여름이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

남학생은 레드벨벳 여학생은 씨스타 최고로 뽑아!

따가운 햇살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요즘 우리는 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 여름이 다가왔음을 체감하게 된다. 여름이면 떠오르는 노래들, 흥얼거리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노래들이 있다. 90년대 대유행하던 히트곡부터 K-POP 걸그룹 노래까지 여름이면 어김없이 소환되는 청소년들의 최애곡은 어떤 노래일까? 진주제일여고 2학년 20명과 진주고등학교 2학년 25명에게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 2곡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레드벨벳 VS 씨스타, 그리고 COOL

순위	진주제일여고	진주고등학교
1위	씨스타-Shake it (9)	레드벨벳-빨간맛 (13)
2위	박명수, 제시카-냉면 (5)	불빨간사춘기-여행 (6)
3위	쿨-해변의 여인 (5)	쿨-해변의 여인 (5)
4위	레드벨벳-빨간맛 (4)	조용필-여행을 떠나요 (5)
5위	씨스타-So cool (3)	San E, 레이나-한 여름밤의 꿈 (4)
6위	f(x)-Hot summer (3)	박명수-바다의 왕자 (3)
7위	씨스타-Touch my body (2)	트와이스-Dance the night away (3)
8위	소녀시대-Party(2)	스컬&하하-부산 바캉스 (2)
9위	트와이스-Dance the night away (2)	박명수, 제시카-냉면 (2)
10위	에이핑크-Remember (1)	손-Way back home (2)

그 외 : 청하-Why don't you know/ 여자친구-여름 여름 해/ ABBA-Our last summer/ UN-파도/ 레드벨벳-여름빛/ 레드벨벳-you better know/ 윤종신-눈송이 빙수/ 정승환-비가온다/ 딘-넘어와/ 버스커버스커-곰목길 어귀에서/ 헤이즈, 딘- And July/ 거북이-비행기/ 씨스타-Touch my body/ 인디고-여름아 부탁해/ 노홍철, 노브레인-더워 먹은 갈매기/ DJ DOC-여름이야기/ 롤라-314!/ 버즈-8년만의 여름/ 쇼팽-Etude Op.25 No.12/ Hisaishi joe-Summer/ 비발디-사계 여름/ 유리상자-제주도 푸른밤/ 버스커버스커-여수 밤바다/ 악동뮤지션-공백빙수/ 트와이스-Cheer up/ 박재범-몸매/ 블랙핑크-뚜두뚜두/



남학생은 여름이면 그냥 레드벨벳인가보다. 레드벨벳의 '빨간맛'을 최고 득표로 1위로 꼽았고 순위 밖의 you better know, 여름빛 모두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답했다. 여름이면 레드벨벳이란 공식이 있는 듯 남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느껴진다. 여학생들이 꼽은 여름 노래 1위는 씨스타의 'shake it'이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은 여학생들에게서는 4위에 그쳤고 남학생이 레드벨벳이라면 여학생은 씨스타라고 할 정도로 순위 안에 씨스타 노래가 3곡이나 추천되었다. 여학생들의 씨스타 팬심이 느껴진다. 흥미로운 것은 씨스타가 남학생들의 순위 안에는 한 곡도 없었다는 것이다.

레전드는 레전드 COOL의 해변의 여인

요즘 레트로 열풍이 거세다. 청소년들의 여름 노래에서도 걸그룹이나 요즘 가수들 사이에 옛날 감성의 오래 전 노래들도 사랑받고 다시 소환되어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냉면' 등이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 노래가 가진 힘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모두 꼽은 여름 노래로 꼽혔다.



들의 여름 노래는 유명한 몇몇 노래가 여름을 독차지 하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노래들이 각자의 여름 최애곡으로 추천되었다. 노래는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가수가 부르지만 그 노래의 주인은 듣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아주 다양한 노래들이 그 사람들의 여름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여름 노래의 볼륨을 높이고 자신만의 시원한 여름속으로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 노래 차트에는 여행, 신나는 리듬, 혹은 여름과 관련된 빙수 등을 주제로 한 노래가 대세다. 하지만 또 의외로 San E, 레이나의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잔잔한 멜로디의 곡도 눈에 띄었고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같은 클래식도 추천이 되어서 이채로웠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청소년

여름 가요계 '쌉쓰리' 예감... 유재석·이효리·비 결성한 '쌉쓰리'

MBC 예능 '놀면 뭐하니?'가 촉발한 레트로 열풍이 가요계를 뒤흔들고 있다. '놀면 뭐하니?'는 현재 방송인 유재석, 가수 이효리, 비와 함께 혼성 댄스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름을 강타할 혼성 댄스 그룹 '쌉쓰리'를 결성, 옛 감성을 듬뿍 담은 신곡을 발표해 그 옛날 혼성그룹 전성시대를 재현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내걸었다. 쌉쓰리의 신곡이 7월에 발표되면 음원 차트는 물론 방송가를 뒤흔들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강인원(진주제일여고2)기자]

[뭐하고 놀아?]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탐방

취향대로 즐기는 #홈카페 놀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생활이 많은 우리들! 마스크는 필수고 나가기도 눈치 보이는 지금! 편의점 재료만으로 카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G편의점 재료로 맛과 비주얼까지 잡을수

있는 홈카페! 만들기도 쉽고 맛있고 일석이조! 그리고 음료수들에 어울리는 영화까지! 집순이, 집돌이는 심심하고 재미없겠지만 바로 홈카페 음료와 여기에 딱 맞는 영화로 재미있는 집콕생활을 해보자!

따라해봐요^^ 편의점 블루레몬에이드

편의점 홈카페!! 적은 돈으로 예쁜 음료를 만들어서 나도 방구석 바리스타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한 편의점 음료들로 홈카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바로 소개해줄게요! 한 번 따라해보세요. 인스타 감성 제대로! 마치 구름 가득 하늘을 연상시키는 음료. 원래 이름이 뭔진 모르겠지만 우린 그냥 '부드러운 탄산속 블루레몬에이드><'라고 합시다!



준비물은 암바사나 밀키스, 블루레몬에이드, 얼음컵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 하죠~

[필통 기자들의 평가]
'레몬에이드 맛' '암바사와 블루레몬에이드 섞은 맛' '음~ 맛있어' '그냥 레몬에이드' '상큼함과 탄산의 조합이 좋았다.' '처음엔 이상한데 다시 먹으니 괜찮다.' '그냥 레몬에이드 같아서 좀 식상했어.'

※레시피※
1. 얼음컵의 얼음을 반정도 뺀다.
2. 밀키스or암바사를 반정도(자신의 취향에따라)를 넣는다.
3. 블루레몬에이드를 넣는다. 완성!

홈카페 추천 레시피 5

카페에서 마시던 음료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홈카페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홈카페 장인들이 추천하는,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우면서 비주얼과 맛까지 보장된 레시피 5!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뽕뽕레라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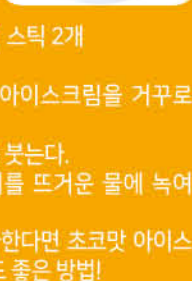
Ingredients
뽕뽕레 아이스크림 1개, 우유 250ml, 블랙 인스턴트커피 스틱 2개

How to make
1 컵에 뽕뽕레 아이스크림을 거꾸로 세운다.
2 차가운 우유를 붓는다.
3 인스턴트커피를 뜨거운 물에 녹여 부어준다.
Tip 단맛을 좋아한다면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

#나른한 오후와 어울리는 향긋한 애플라테

Ingredients
사과 1/2개, 사과주스 4큰술, 꿀 2큰술, 우유 200ml

How to make



1 사과를 잘게 썰어 컵에 담는다.
2 잘게 썬 사과 위에 사과주스를 붓는다.
3 꿀을 넣고 저어준다.
4 따뜻한 우유를 컵에 가득 채운다.
5 우유 위에 잘게 썬 사과를 올리면 완성.
Tip 시나몬가루를 좋아한다면 우유 위에 적당량을 솔솔 뿌려줄 것!

#은 가족이 좋아하는 새콤달콤 망고요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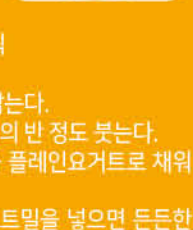
Ingredients
얼음 적당량, 망고주스·플레인 요거트 150ml씩

How to make
1 컵에 얼음을 담는다.
2 망고주스를 컵의 반 정도 붓는다.
3 나머지 부분을 플레인요거트로 채워주면 완성.
Tip 견과류나 오트밀을 넣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제격!

#아이와 함께 즐겁게 만드는 달고나딸기우유

Ingredients
딸기맛 젤리 스틱 2개, 휘핑크림 3큰술, 우유 200ml, 얼음 적당량, 딸기 1개

How to make



How to make
1 딸기맛 젤리 스틱에 휘핑크림을 넣고 흔들릴 때까지 저어준다.
2 컵에 우유를 붓고 얼음을 넣는다.
3 우유 위에 ①을 얹어주고 딸기로 장식한다.
Tip 휘핑크림 위에 생딸기를 올리면 상큼함과 함께 비주얼도 배가된다는 사실!

#누구나 아는 중독적인 맛 바나나라테



Ingredients
바나나우유 200ml, 휘핑크림 1/4컵, 설탕 1큰술, 블랙 인스턴트커피 스틱 1개, 바나나·애플민트잎 적당량씩

How to make
1 컵에 바나나우유를 붓는다.
2 휘핑크림에 설탕을 넣고 휘핑크림한다.
3 인스턴트커피를 뜨거운 물에 녹여 바나나우유 위에 부어준다.
4 바나나라테 위에 ②를 올린다.
5 바나나로 장식하고 애플민트잎을 올리면 완성.
Tip 진한 맛을 원한다면 바나나우유를 얼린 얼음을 추가할 것!

[취재/ 정보경(진주중앙고2), 윤윤희(삼현여고2)기자]

청소년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공식 신분증 기능에서 교통카드로, 편의점에서도 OK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어린 청소년들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 있다. 바로 '청소년증'이다. 보통 학생증이 청소년들의 신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공인한 공식 신분증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거래, 시험응시(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거 때 투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영화관에서는 500원~1000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 박물관은 무료나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2017년도부터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 별도의 등록 없이 청소년 할인 요금

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문화시설이나 편의점에서도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고 나서 2~3주 후 발급되며 사이트(www.komsco.com)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며 등기 수령도 가능하다.(등기 수령일 경우 비용은 신청인 부담). 본인 신청은 물론 부모님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분명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이지만 턱없이 낮은 인지도 탓에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청소년의 15%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청소년 할인에는 '청소년증'이 아니라, '학생증 제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청소년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확한 신분을 알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 청소년으로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로 격주 등교가 이루어지는 요즘, 잠시 시간을 내어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증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이영광(진주기공2)기자]

꼭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나요??

일본, 중국도 폐지한 부성우선원칙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알 수 있듯 대부분 자녀들의 성은 아버지를 따른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교 전통 탓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민법 상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름에 엄마 성은 왜 못 쓰는 걸까?

민법 제781조 제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즉, 부성우선원칙 또는 부성우선원칙이다. 다만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선택 조항을 넣어 여지를 뒀다. 2005년 민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하는 '부성강제주의'였는데 민법 개정 후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시' 미리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여기서 '예'를 선택해야 아이 성씨를 어머니의 성으로 따를 수 있다.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따로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주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절차는 끝이 난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까지 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성씨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여자가 자신의 성씨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쓰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간다. 또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쓰더라도 어머니의 성씨도 같이 쓰고 싶은 경우에는 미들 네임, 즉 중간 이름을 갖기도 하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오랜 관습들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도 일어나고 2005년 호주제까지 폐지했지만 많은 비판을 뒤로 하고 여전히 부성우선원칙은 그대로다. 이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 뿐 아니라 별거가족·동거가족·동성애 가구·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난 현실에서 부성우선원칙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다. 인식도 달라지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부성우선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을 허물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미 40년 전에 부성우선원칙을 없앴고, 일본은 1947년 헌법 시행과 함께 폐지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남성 중심의 유교 관습으로 내려오던 전통들이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가야 한다.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이상할 것 없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것만큼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가 하루 빨리 다가 왔으면 한다.

[취재/ 김태희(진주제일여고1)기자]

지금 청소년은 FLEX에 빠져 있다

무분별한 브랜드 선호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개인의 개성을 잃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받은 용돈으로 소비욕구를 해결한다.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브랜드 값이 높은 제품, 일명 메이커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간단한 의류 브랜드 제품들은 가격대가 보통 5~10만 원이며, 패딩이나 플리스 재킷은 30~50만 원을 훌쩍 넘는다. 대부분 학생들의 옷장 안에는 브랜드 제품이 적지 않게 종류별로 걸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비싼 브랜드제품을 찾아야만 할까?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의 평균 용돈은 한 달 기준으로 10~20만 원 정도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런 소비성향은 얼마지 가지 않아 용돈을 탕진하는 결과를 만든다. 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부모님께 추가 용돈을 요구하게 되고 다음 달 용돈을 당겨 받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브랜드 제품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걸까? 학생들이 주로 듣는 음악 장르인 힙합에 flex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flex'라는 단어는 힙합 뮤지션들이 가사나 일상어로 자주 사용한다. 의미는 '뽐내고 자랑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런 힙합의 문화가 학생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또, TV나 신문 등의 브랜드의 광고도 브랜드 선호사

상을 부추긴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브랜드 광고를 보면 구매 욕구가 강해진다.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려 한다. 남들과는 다른 옷, 유명연예인이 광고하는 가방,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신발 등 브랜드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자 한다. 또,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학생들 때문에 유행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학생들이 특정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면 나도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행에 따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모들의 자식 사랑도 한 몫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길 바란다. 부모들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최고급 브랜드로 치장시키고 많은 용돈을 쥐고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는다. 학생들의 개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의 옷이나 가방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개성을 망칠지도 모른다. 실제로 진주시내나 인근 변화가 거리만 돌아다녀도 똑같은 나*키 바람막



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외형의 가방과 신발, 옷 등을 매고, 신고, 입는다면 그저 다 똑같이 생긴 움직임은 마케팅들로 보일 뿐이다.

물론 브랜드 제품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악영향만 준다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입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브랜드 선호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남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알맞고 실용성 뛰어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습관이 필요한 때다. 자신의 가치는 상품의 가격보다 내면에서 평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재/ 박서진(진양고2)기자]

남고, 여고 왜 나누어져야만 하나

양성평등 시대, 남녀공학보다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

옛말에 '남여칠세부동석'이란 말이 있다. 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강해서 일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은 분리된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왜 남고, 여고를 나누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진주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남녀공학보다 확연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있는 단성학교가 더 많다. 남녀공학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주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유교적 문화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학교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심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각 학교의 전통이 깊다 보니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 이런 분위기는 신선편학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 된다.

그렇다면 남고와 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J남고, J여고 학생들 각 100명에게 설문지를 진행한 결과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77.8%, '그렇지 않다'라고 생

각하는 학생이 22.2%로 조사됐다.예상 밖으로 남녀공학이 아닌 현재의 성별로 분리된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결과였다.

남녀공학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남녀가 같이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평소엔 남고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다.' , '연애하는 애들도 많고 공부에 집중 못하고 성적이 떨어질 게 뻔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남녀공학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10대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하는 시기인데 성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성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대학교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것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구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학이 당연히 문제점이 더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막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등등의 의견으로 갈렸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이미 양성평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강제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아닌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도 있다. 또 반면 남녀공학의 이성교제 문제, 성적하락 등을 문제 삼아 남녀공학을 포기하려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든 변화에는 혼란이 따른다. 대학입시 공부만 보면 남, 여학생을 떼어 놓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른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성교제가 일상이 되는 남녀공학은 선택해서는 안 될 교육 방법이 된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이 옳바르고 훌륭한 선택일 수는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고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학업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함께 있기에 생기는 다양한 사고와 문제들을 단순히 남,여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함께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취재/ 서이현(진주고2)기자]

창의적 체험 활동, 자발적 자습시간인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체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여러 활동을 하는 시간을 편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감상문을 적어 제출하는 등의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활동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비는 시간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강의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당연한 듯 동영상 시청과 인쇄물을 내주는 것이 교육의 전부 일 때도 있다. 강의의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이미 반복해서 배운 것들이거나 늘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정도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몇몇 학생들은 교과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사실 거의 떠돌고 놀다가 생기부 때문에 감상문을 진로와 연관 지어 억지로 적어 낸다." "영상은 전혀 1도 도움이 안된다." 고 말했으며 S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씨는 "대부분 자습하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회의하러 가서서 노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그저 노는 시간, 떠드는 시간 일 뿐이라고 얘기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

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학교현장의 모습은 과연 이러한 도입취지에 알맞은 풍경일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에서 늘상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한다면 같은 주제라도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는 분명히 클 것이다. 시간표에만 있는 유명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루 빨리 잘못된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이

자치	적응	행사	특색
19	학급회의[17일(수-5교시)]	개학식[16일(화-1시22)]	독서특색활동(순9-순회수업시간)
26			재난·교통 안전교육[22일(월-1교시)]
2	학교폭력예방교육[29일(월-1교시)]		독서특색활동(순9-순회수업시간)
9	학급회의[1,2년/5월(월-1교시)]		독서특색활동(순10-순회수업시간)
13	성폭력, 성매매방지교육[12(월-1교시)]		독서특색활동(순11-순회수업시간)
23			
30			나라사랑교육[26일(월-1교시)] 독서특색활동(순12-순회수업시간)
7			독서특색활동(순13-순회수업시간)
14	학급회의[10일(월-1교시)]		정보통신윤리교육[12일(수-5교시)] 독도교육[12일(수-6교시)]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 되어 학생들이 자기개발은 물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취재/ 정예림(진주여고2)기자]

교과서는 거들 뿐 공부는 부교재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낭비성 부교재 학생 부담 크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

새학기가 되면, 서점에는 학생들이 바글거린다. "뭐 사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다. "부교재요." 또는 "보충교재요." 그래서인지 서점 한 켠에는 각 학교마다의 부교재/보충교재 목표표와 함께 해당되는 책들이 줄줄이 쌓여있다. 부교재/보충교재는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로 사용하는 문제집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충시간(8,9교시)에 사용하거나 교과서를 대신하여 수업하는 교재이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부교재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거나 의도하지 않게 경제적 피해

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생긴다. 가장 먼저 부교재를 구매하는데 큰 불편함 있다고 한다. 교과서와 달리 부교재는 개인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이 구매를 하면 서점에 재고가 부족해 구입을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책을 주문하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기간에 선생님이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재가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발생하게 된다.

S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책을 구입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빨리 부교재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선생님께 혼을 내셨는데 조금 억울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 시험공부 양도 많아져서 힘들다.' '한두 과목도 아니고 부교재 구입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많이 부담스럽다.' 등등의 반응이었

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부교재들이 가격이 비싸고 구입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학교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문제집은 부교재로써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그 실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늘어난 가는 부교재와 보충교재 구입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와 별도로 부교재나 문제집이 필수가 된 현실이 올바른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인지 학교와 교육당국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부교재 없이는 정상적인 교과과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이니 말이다.



몇 권이 되더라도 부교재가 정해지면 학생들은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꼭 필요한 교재라면 학생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에 불만이 있을 학생은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실제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낭비성 부교재는 학교나 선생님들이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다.

[취재/ 온유희(삼현여고2)기자]

[JOB을 잡아라] 진주경찰서 박OO 형사를 만나

경찰이 되고 싶다면 사명감과 정의감을 장착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직업 중 하나가 경찰일 것이다. 요즘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특이하게 몇몇 학교에는 경찰동아리가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다. 왠지 딱딱하고 계급이 있고 삭막할 것 같은 분위기의 경찰이라는 직업이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경찰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관, 경찰 중에서도 멋집으로 대변되는 '형사'! 진주경찰서 형사와 박OO 형사를 만나 '폴리스 스토리'를 들어 보았다.



Q. 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경찰서 형사와 소속 박OO형사입니다.(인터뷰에는 응해 주셨지만 보안상 이름과 얼굴사진은 내 보낼 수 없다고 이해를 구하셨다. 오늘 당장 범죄자를 만나야 되는 직업 특성 상 형사의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Q. 형사가 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아버님이 경찰관이세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 커서보니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경찰은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사회에 이로운 일이 많아요.

Q. 경찰을 꿈꾸는 청소년 친구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경찰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가 사명감이 나 정의감 없이는 하기 힘든 직업 같아요.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범인을 검거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항상 긴장 하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형사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경찰관이 되셔야겠죠. 옛날에는 뭐 검도 몇 단, 유도 몇 단 이렇게 무예가 출중한 사람에 한해 특별채용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관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난 후 수사경력라는 자격을 취득해야만 형사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범인이 있으신가요?

A. 네 최근 3월에 벌어졌던 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일가족을 살해하려다 딸만 다행히 살아남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Q. 베테랑, 범죄도시와 같은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고 경찰이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영화와 실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A.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선 영화처럼 바로 컷트 넘어 가듯 잡는 게 아닌 엄청난 노력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출석에 불응 한다던가 잠복 수사, 자료 수집과 같이 범인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이나 시간을 들죠. 영화에선 그걸 다 보여줄 순 없잖아요. 클라이막스만 멋지게 편집하는 거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선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선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검거 과정은 실제의 10분의 1 정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여자경찰과 남자경찰의 차이점이 있나요?

A. 아니요 지금 저희 수사과에도 여자 형사분이 계신데 전혀 하는 일에 대해선 차이가

없습니다. 잠복을 하기도 하고 당직도 번갈아 가며 서시죠.

Q.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보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A. 개인적으로는 저도 형량이 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나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신상 공개도 해야 합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게 교정시설에 있다가 출소했을 때에도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겠죠.

Q. 어떤 학생들이 형사에 어울릴까요. 추천하신다면?

A. 육체와 정신 모두 자기 관리를 잘하고,

각합니다. 그 분들은 최초 신고만 받고 출동하시기 때문에 범죄 현장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죠. 반면 그래도 저희는 위험이 높아도 준비된 상태니까요.

Q. 위험한 일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위험수당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저희처럼 현장에 나가는 외근직은 많지는 않더라도 따로 매 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형사 분들은 실탄 발사가 가능한 총을 소지하고 다니시나요?

A. 아닙니다. 총은 소지하진 않고 무기고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 절차를 밟아 사용 하

“영화 속 형사요? 그 장면들과 비교 불가능한 10배 이상의 치열한 땀과 노력이 현실에는 숨어 있습니다.”

노력형의 부지런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 특히 힘없는 사람을 보면 못 지 나치는 그런 정의감이 높은 친구들이 형사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Q. 형사는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A. 제 생각에는 형사보다 파출소나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

는 거죠. 요즘은 총보단 범인 제압이 가능한 테이저건을 소지합니다. 칼을 든다던지 위험한 강력사건 같은 경우엔 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경찰이라는 직업이 사명감이 없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내가 앞에 서서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자신감이 나 정의감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찰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경찰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과 형사의 차이점이 뭐죠?

형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 중에서 수사부서인 형사과, 수사과 등에서 사복복장으로 주로 수사 업무(채증, 수사서류 작성, 잠복, 추적, 범인 체포) 등을 하는 경찰관을 칭합니다.

또한 정보과나 보안과에서 외근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형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으며 생활안

전과 소속 지하철수사대나 여성 청소년계 근무자 중 수사파트에서 일하면 형사라 호칭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형사는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의 형사과 당직팀이나 강력팀 근무자들을 호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는 경찰관 중 본인의 희망이나 간부급의 추천을 받아 일정기간 수사교육을 받아 인사발령이 이루어집니다. 형사는 경찰관 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의 경찰입니다.

경찰이 되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라!

흔히 사람들은 경찰이 되려면 무조건 경찰공무원 시험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경찰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찰시험에 응시

일반경찰시험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에 신체조건이 맞게 된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크게 4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과 체력검사, 인성검사와 면접을 통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필기시험 과목은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경찰학 개론입니다. 그 후 체력검사, 인성검사, 면접이 진행됩니다.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응시

경찰간부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공통적인 응시자격기준입니다만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경찰공무원 제 7조 2항에 의거)시험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간부후보생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대학에 진학

경찰대학은 학비가 전액 면제가 되고 졸업을 할과 동시에 경찰 중간간부인 경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1차 시험과 체력시험을 보는 2차, 그리고 수능점수를 반영하는 3차로 진행이 되며 반영비율은 수능60% + 자체시험 20% + 내신15% + 체력시험 5%로 진행 됩니다.

최근 경찰대 인기는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7학년도 경찰대 입시에서는 100명 모집에 1만 1364명이 몰려 1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2018학년도엔 68.5대 1로 경쟁률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때부터 경찰대의 1차 시험일이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다른 사관학교 1차 시험일과 겹친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가 거듭될

수록 경찰대의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진행된 2019학년도 경찰대 입시 경쟁률은 57.3대 1로 떨어졌고, 올해는 47.5대 1까지 추락했습니다.



경찰대 인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경찰대생에게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사라졌거나,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대생에게 주던 병역 혜택이 없어지고, 전액 무료였던 학비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의무경찰제도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올해 경찰대 신입생부터는 일반인과 똑같이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경찰은 국방부와 경찰대 학생들의 군 복무시 처우 문제를 논의 중이나, 국방부는 이등병 입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정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입학 가능 상한 연령도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12%로 한정되어 있는 여성 입학 상한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허윤지(삼현여고2), 노현승(동명고2)기자]

경찰공무원 계급과 역할

순경	경장	경사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 지방청 실무자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등), 경찰청 지방청 반장급	경찰서 과장, 경찰청 지방청 계장급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지방청 차장, 서울·경기지방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급	지방경찰청장, 경찰청합동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장국급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지방 경찰 청장, 경찰대학장급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

[대학in 진주] 진주보건대학교를 찾아서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 진주보건대학교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이다.

눈을 즐겁게 만든다.

위치는 상봉동, 진주 시내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 정문에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다. 숨이 차고 약간의 등반 기분도 들지만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나무와 걸어 오르는 길에서 보이는 풍경이

면적은 다음 지도 기준 약 2만7,000제곱미터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작은 캠퍼스를 자랑한다. 전국에서도 약 465위 정도로 하위권 중 하위권. (뒤로 40개의 대학캠퍼스가 더 있다는 게 사실 더 놀랍다.)



보건대 전체 캠퍼스는 본부동, 성실동, 봉사동, 창의동으로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본부동 : 말 그대로 진주 보건대의 본관이다. 이곳에는 간호학부가 위치해 있다.
- ▶성실동: 이곳에는 카페테리아가 위치해 있다.
- ▶봉사동: 이곳에는 치기공과, 보건행정과

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학식을 먹을 수 있는 학생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대강당이 위치해 있다.

- ▶창의동: 이곳에는 보건대의 꽤 많은 학과가 위치해 있다. 피부미용학과, 항공서비스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가 위치해 있다.
- ▶한가람학사: 보건대의 기숙사다.

기숙사도 있고 등록금 걱정 NO

진주보건대학교는 아무래도 보건 계열이 전문이다 보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보건대 기숙사는 여학생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학생 기숙사가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 본관 건물을 들어서면 당연히 그 곳이 1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층이다. 즉, 건물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산을 완전히 평지로 만든 후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의 경우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진주 보건대 학교 임상 병리과에 다니는 학생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임상 병리과는 한 학기에 약 300만원을 등록금으로 낸다. 이는 요즘 한 학기 등록금이 800에서 9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을 넘어가는 보통의 사립대학교와 비교해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적은 금액이다.

진주보건대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문대라는 선입견과 편견

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래는 분명 전문인력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간호사, 임상 병리사 등 보건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진주보건대학교를 가고 싶은 대학 후보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



〈기숙사 전경〉



1999년 '간호'가 사라지다

진주보건대학교는 1971년 12월 23일 설립하여 1972년 3월 20일 '진주간호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1979년 3월 1일 '진주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1981년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9년 2월 3일 '진주보건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창립부터 있던 간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늘 날 이름의 원형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오래 전문대학들이 그러하듯이 2011년 11월 20일 '진주보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진주보건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5월 8일'이다. 이는 재단인 '한가람학원'이 설립된 1971년 5월 8



〈학교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간호학부는 여전히 진주보건대학의 핵심적인 학과다. 나이팅게일 선서 장면〉

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을 대표하는 보건계열 전문 교육기관

진주보건대학교는 1972년 개교해 간호·보건, 항공서비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47년 전통의 지역대표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이다.

간호학부,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보건행정과, 피부미용과, 항공서비스과, 사회복지계열(사회복지전공

(주·야간), 유아보육전공) 7개 학과 1개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신설한 항공서비스과는 항공분야 성장에 발맞춰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항공사 객실 승무원, 지상직 승무원, 공항보안검색요원을 양성하는 학과다.

졸업에서 취업으로 연결되



〈1981년 개설돼 매년 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진주보건대 치기공과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치과기공사의 양성을 위해 캐나다 해외전공심화과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기공과는 국가시험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학과다〉



〈진주보건대학교의 항공서비스과는 교양 및 전공지식을 겸비한 항공사 객실승무원 및 지상직 승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위주의 NCS기반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항공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항공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다〉

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졸업 전까지 전공 관련 면허 또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87개 국내외 산업체, 산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뜻을 펼칠 수 있도록 'JHC 기숙형 영어 능력 심화 프로그램'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해외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해외 전공연수, 간호학부 국제학생 교류(일본 나가사키 대학)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보건대학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최신 교육기반시설 구축, 국제교류 및 해외현장실습을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대학 입시제도에 변화 3가지 포인트



코로나19로 대학입시도 비상입니다. 2022학년도 4년제 198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3가지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시 선발 비율 증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력 인구도 감소되어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6553명을 선발하는데 2021학년도에 비해 894명 감소한 인원입니다. 전체 정원의 24.3%인 8만 4175명을 정시에 선발하는데 2021학년도에 비해 1.3%p 증가하였습니다.

정시 선발 비율이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은 14만 8506명(42.9%)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7만 9503명(22.9%)으로 전년 2021학년도에 비해 6580명 감소했습니다. 논술전형의 경우에도 93명을 감소 시켜 2021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전형 중 대부분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감소로 정시 선발 인원은 4102명이 증가했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로 2023학년도부터 정시 40% 확대 예정이던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 정시 40%로 확대 시행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16개 대학 평균 정시선발 비율은 37.9%로 2021학년도 29.7%에 비해 큰 폭의 차이를 보여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정시 선발이 크게 증가한 대학은 고려대(21.7%p증가), 경희대

(11.8%p증가), 한양대 (10.5%p증가), 연세대 (9.4%p증가)입니다. 이에 반해 1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은 45.45%에서 36.05%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2. 수능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준비

2022학년도 대입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이 도입되어 국어의 경우 공통문항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택 1, 수학의 경우는 수학 1과 수학 11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게 됩니다. 또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택1, 탐구영역은 사탐, 과탐 중 17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수의 대학은 선택과목 제한이 크게 없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 별 선택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일부 모집 단위에

서만 선택과목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체크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을 지정한 대학의 자연계열 전체모집단위 일부 모집단위에서만 선택과목 지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일부 상위권 대학의 모집군 변화

서울대에서 2022학년도부터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했고, 서울대 이동에 따라 기존 나군에서 수험생을 선발했던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서강대는 나군, 이화여대는 일부 모집단위에서만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군 모집을 신설해 대부분은 나군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숙명여대에서도 모집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학년도와 큰 차이가 있게 될 2022학년도에 서울대, 이화여대, 가천대 등의 약학대학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총 1578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취재/ 하서준(진주교2) 기자]

[TOP클] 공부 1등. 대아고 전교1등 김건우를 섭외하다

공부 TOP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TOP, 1등! 그다지 안 해 본 사람은 기본 좋은 말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과정도 있고 노력이 반드시 있다. 필통에서는 1등을 추구하는 것도 조장하지는 않는다.^^ 공부만 TOP이 있는 것이 아니다. 놀기에도 TOP이 있다. 앞으로 필통은 어떤 분야에서든 TOP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 한다. 처음이니까 점잖게 공부 TOP을 섭외해 봤다.

Q. 대체 공부는 언제부터 잘했나요?

A.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하지만 주위로부터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유치원 때부터입니다.^^

Q.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나요?



〈지치고 힘들 땐 별을 보라^^〉

[찬란한 그의 기록]

- ▶ 대아고, 1학년 2학기 1차고사 전교 1등
 - ▶ 대아고, 1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교 2등
 - ▶ 대아고, 1학년 2학기 2차고사 전교 2등
 - ▶ 1학년 전국 연합 모의고사 최저점 410점 이상
 - ▶ 1학년 전국 연합 모의고사 백분율 99.xx
- (이 이상의 정보는 대상 학생의 부탁으로 제외함)

A. 시험 기간, 방학, 평소에 상관없이 4시간 정도 잡니다. 학교에서 야자를 마치면 10시, 집에 오면 10시 반인데, 집에 와서 쉬거나 학교 과제를 하다 보면 2시쯤이 돼서 총 4시간 정도 잡니다. 대신 주말에는 토요일은 4시간, 일요일은 12시간 이상 잡니다.

Q.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은 많이 하나요?

A. 일단 휴대폰 게임은 우파루 마운틴과 심시티 빌드잇을 하는데, 두 게임 다 게임의 특성상 하루에 1~2번 5분 정도만 접속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진 않습니다. 게다가 우파루 마운틴은 석종 예정이라... 또, 심시티가 할 거 없을 때는 앱으로 네모로직 자주 합니다. 아 필통 네모로직도 매달 참여합니다. 컴퓨터 게임은 제가 너무 못해서 안 합니다.

Q. 공부는 보통 하루에 얼마나 하나요?

A. 일단 학교 야자시간에 2시간~2시간 반(30분~1시간은 주로 잡니다) 정도 하고 집에 서는 웬만하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평소보다 1~2시간 정도? 더 합니다. 작년에 국어, 영어, 사회, 과학에 비슷하게 투자하고 수학을 상대적으로 안 했는데 수학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Q. 전교 1등은 진짜 교과서로 공부하나요?



A. 다른 학교 전교 1등이라면 교과서 말고도 다양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학교 교과서와 학교 부교재를 주로 봅니다.

Q. 공부할 때 지치거나 힘들 때 힐링하는 방법?

A. 학교에서 자습할 때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는 사회과 부도를 보거나, 공책에 낙서를 하거나, 옆에 친구와 논다. 아니면 자는 것도 좋습니다. 3시간 졸린 상태로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 자고 1시간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지치고 힘이 들면 저는 밤에 별을 봅니다. 피곤할 때도 별을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짧게는 10~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

Q. 자신만의 공부법 혹은 과목별 공부 꿀팁 같은 게 있나요?

A. 딱히 저만의 독특한 공부법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다가 가끔씩 놀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Q.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나요?, 학원 혹은 과외의 장단점은?

A. 과외를 받지 않고 국어 학원만 다닙니다. 학원에서 중요한 것은 학원을 다니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보다 학생의 태도가 중요하



〈대아고 2학년 김건우〉

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잔 적은 없나요?

A. 아예 엎드려 잔 적은 없지만 존 적은 아주 많습니다. 3~4시간 자고 오후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페인과 함께라면 오전 수업은 견딜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학생 때는 공부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훗날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공부 하나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취재/ 조진영(대아고2)기자]

TOP의 KEYPOINT

(다큐 아닌 예능^^)

- ▶ 4시간 점! ▶ 게임은 휴대폰 게임만 함!
- ▶ 집에서 공부 안 함!
- ▶ 독서실은 게임 할 때나 가는 곳!
- ▶ 교과서+부교재만 충분! ▶ 졸릴 때는 잔대!
- ▶ 지칠 땐 별을 보라!
- ▶ TOP도 오후엔 잔대! ▶ 학원은 태도대!
- ▶ TOP이니까 하는 말 '순간을 즐기라!'

[SOS 닥터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스트레칭

하루 10분 간단 스트레칭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뒷목 스트레칭

1

코로나19로 건강을 넘어 바이러스의 공포가 일상이 된 요즘이다. 어느때 보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때다. 내신과 대학 입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건강정보가 필요하다. 책상에 장시간 앉아 있고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이번 호엔 스트레칭이다. 꼭 따라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 통증을 호소한다. 휴대폰을 많이 해서 아픈 줄 안다. 하지만 단지 휴대폰이 통증의 원인은 아니다. 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생기는 통증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거북목, 일자허리, 근육 경직 등의 질병이 된다.

실제 10명의 학생에게 물어보니 평균 공부시간이 하루 10.3시간 정도이었으며, 휴대폰을 하는 시간은 평균 6.1시간이었다. 결국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을 목을 숙이고



목 스트레칭

2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 어깨, 허리 중 어느 부위가 평소 가장 아프냐' 라고 물었을 때에 10명 중 5명의 학생이 목, 4명의 학생이 허리, 1명의 학생이 어깨라 답변했다. 학생들은 그렇게 아픈 걸 하루 평균 16시간을 버티며 일 년 약 4800시간을 방치하는 꼴이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바뀐다. 오랫동안 책상에 앉거나, 휴대폰을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평거동 한 정형외과의 의사 선생님과 요가, 필라테스 강사님께 여쭙보았다.)

먼저, 요가, 필라테스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스트레칭 방법이다.

1. 머리 뒤 깍지를 살짝 잡은 채로 호흡을 내쉬며 고개를 앞으로 숙여 팔꿈치를 모은다. 뒷목을 앞으로 쪽 뺐다 준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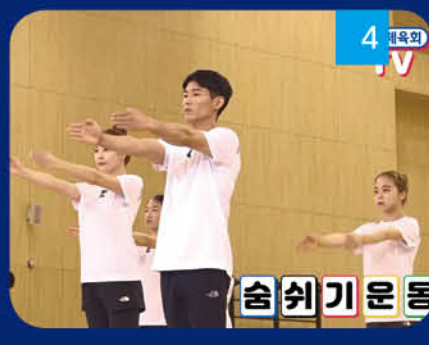
이때에 몸을 둥글게 말아 등까지 숙이는 경우가 많은데 등을 반듯하게 세워 자신의 목을 반만 숙여 손으로 머리를 앞으로 쪽 뺐다 해야 한다.

2. 한쪽 자신의 머리 대각선 뒤에 대고 고개를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돌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돌려준다. 이때 반대쪽 팔의 어깨를 뒤쪽 아래로 쪽 당겨준다.

3. 기도하는 자세로 손을 만들 뒤 엄지손을 턱 밑에 놓는다. 이후 턱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 더하여 고양이 자세도 좋다고 한다.

다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스트레칭이다.

4. 국민체조이다. 국민체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영상이 나와 쉽게 접할 수



4

숨쉬기운동

있다. 흔히 초등학교 체육시간 몸 풀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해 낯설진 않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하겠지만 국민체조의 동작들이 목 근육과 허리 근육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국민체조 안에는 제자리걸음, 숨쉬기, 무릎 굽히기, 팔 돌리기, 목 돌리기, 가슴운동, 옆구리 운동, 등배 운동, 몸통 돌리기, 온몸 운동(노짓기), 뒤편기, 팔다리운동, 숨 고르기 총 13가지의 동작이 있다. 이 동작들을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하여 스트레칭 한다면 목과 허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청소년들은 장시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 하지 않나.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한다. 딱 하루 10~15분만 투자하여 스트레칭을 하자. 건강해지는 습관이다.

[취재/ 김시은(진주제일여고1)기자]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요길 뿐 친구들에게



진주친구들 안녕!! 벌써 날 잊어버린건가. 흑수? ㅎㅎ 애들아 연락 좀 하고 살아. 너네랑 학교생활 하던 때가 그리다. 무척 ㅠ ㅠ 정말 재밌었는데 나만 그래? ㅋㅋㅋㅋ 보고싶은 친구들도 참 많아~ 무엇보다 삼현여고 하지만, 고우, 진양고 김민정♡♡ 우리 시험 끝나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제발 만나자. 그날은 무조건 나가볼게. ㅎㅎ 애들아~ 이 편지보면 연락해. 잘 지내구 알겠지? 그럼 안녕~

-From. 그때가 그리운 석민주

T.O. 숲이

숲아. 오늘 날짜로 하면~ 오늘 숲이의 생일이네. 숲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초6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싸울 때도 있었고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지금까지 나의 친구로 있어줘서 고맙구. 평생 친구인 거 알지? 우리 둘이서 논 적 많이 없는 거 같은데 섬 끝나구 꼭 같이 놀자. 물론 중3 애들이랑도 같이 놀자!! 표현은 자주 못하지만 내친구 숲아! 사랑하는거 알지? 자주 연락하라고 했으니깐 자주 연락할게 알라부~

-From. 답답이

T.O. 사랑하는 지민 아림 유정

온니들!!! ㅎㅎ 옴 작년 유등축제 할 때 마지막으로 다 같이 놓고 지금은 왜케 안 놀아. ㅠ ㅠ 이거 보면 바로 약속 잡아서 놀자. 나 노래방도 가고 싶고 곱창 전골도 먹고 싶고~ 막 그래 아니면 우리 집에서 치킨이라도 먹장!!!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보고 싶어. 나랑 친구해 줘서 넘나 감사해요~ 우리 영원하 잡 귀!

-From. 조무래기 17 소현 (사진써서 짜리뭉 ㅋㅋ)



T.O. 리아,수진,희정,윤희

애들아!! 중3때 너네 만난 게 진짜 행운인 것 같아. ㅠ 너무너무 그리워. ㅠ ㅠ 과학시간에 한 모듬에 앉아서 노래부르고 얘기하고 논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마지막에 본 게 리아 생일 때였지? 5월달에도 보자고 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못보고 아쉽다. ㅠ ㅠ 빨리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 사랑해 ♡ ♡ ♡

-From. 예뻐쓰♡



T.O. 태찬

반갑노 양찬! 요새 접선이 잘안되노, 니 만날 먹는거 사진 찍어서 그만 보내고. 오랜만에 신안동 맥날 갔다가 오셀로 갔다가 씨쌍에서 5곡 조지고 딱 호떡먹으로. ㅠ ㅠ 그리고 요새 번개장터에 맞들리지 말고 니 인형 좀 살게 집에 꼭 박아놔라. 라이언 어따 팔게. ㅋㅋ ㅠ 그리고 니 10cm도 아니면서 10cm 노래 맨날 부르자고 내가 케이윌 노래 좋아하니까 케이윌 노래좀 들어놔라. ㅋㅋㅋㅋ 같이 합부르자! 아 그리고 개량은 잘되고있니?! ㅎㅎ ㅎㅎ 형이 옆에서 응원할게^^

-From. 민수



T.O. 진양 9반



T.O. 2019 진중관악부 졸병들아~



애들아. 잘지내고 있냐? 이 형님은 잘지내고있다. 짧은시간이지만 3년동안 같이지낸 3학년들 고생했고 수고했음. 이거 보면 연락해라 형이 밥 살게...

-From.관악부장

안녕~ 난 섹프쿨이야. 오글거리지만 잘 써볼게~ 학기초에 어색해서 말도 못했던거 기억나냐. 근데 벌써 2학년이 되어 서로 다른 반이 됐네. ㅠ 모두 착하고 재밌어서 더 즐거웠던거 같아. 같이 다니면서 다름도 있었지만 난중에는 잘 지내주셔서 고맙았어. 이제 우리반 출석 영원히 못 들으니 슬퍼네. ㅠ 송인쌤 쌤 말처럼 학창시절중 가장 기억에남는 1-9반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끔 7반 외쳐. ㅎㅎ

-From.9반 섹스프리티큐티걸이

T.O. 재덕

재덕아 안녕? 나 대호야 ㅎㅎ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쓸 일이 있었가 했는데 어찌다보니 이렇게 쓰고있네. ㅎㅎ..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후 수업때 처음 만나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인연이 이어졌다는 게 조금 신기하고 놀라워. 8년 넘게 알아왔지만 같은 반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거 같아. 그동안은 서로 알면서도, 잘 알지는 못한 애매한 관계였지만 이번에 같은 반이되서 2학년을 같이 지내게 된 만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ㅎㅎ 그럼 안녕

- From. 대호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가 힘드네요.벌써 6월 중순이고 이제 고3들이 졸업앨범 사진을 찍는 시기가 왔네요. 올해 처음으로 반 단체사진을 찍었네요. 멋진 녀석들과 마무리 잘 하고 싶네요.

- From. 너희 담임 Youngjo Lee

